

learning letter

# 배우러 와

평생학습관 개관 10주년 기념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Suwon Global Lifelong Learning Center



learning letter

배우러 와

평생학습관 개관 10주년 기념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Suwon Global Lifelong Learning Center



# 여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원시 글로벌평생학습관

관장 조영호

여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움을 통해 행복을 가꾼 이야기

배움을 통해 사업을 일군 이야기

배움을 통해 사회를 밝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도전의 서사시가 있습니다.

배움을 통해 역경을 극복한 이야기

배움을 통해 미지의 세계를 탐험한 이야기

배움을 통해 운명을 이겨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다.”라고

미국의 교육철학자 존 듀이가 이야기했듯이

배움이 곧 삶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생생한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수원시 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 2020년 11월부터

매주 배달해 드린 ‘배우러 와’를

1호부터 50호까지를 소책자로 모아서 배달해 드립니다.

즐겨주시고, 힘을 얻으세요.

감사합니다.



# Contents 목차

## 발간사

## 목차

### 배우러 와~

1. 폐교에서 시작한 새로운 배움터 .....	8
2. •이금옥 할머니의 연애편지 .....	9
•마을에 화장실이 만들어지기까지	
3.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소원 .....	10
•“마누라 하고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	
4. •가방을 든 운전기사 .....	11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공감교육’	
5.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을 만든 습관 .....	12
•가장 친절한 병원 만들기	
6. •비틀즈의 성공비결 .....	14
•스페인 몬드라곤의 기적	
7. •무학이 성공비결? .....	16
•햄버거 대학을 아세요?	
8. •머리하는 여자인가, 헤어디자이너인가? .....	18
•‘시민과학’을 아세요?	
9.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총을 맞은 아이 .....	20
•기적의 놀이터는 무엇이 다른가?	





10. • 권투선수 부적격자 무하마드 알리 .....	22
• 예술작품으로 변한 시골 마을의 논	
11. • 목숨을 걸고 일주일을 걸어서 학교가는 아이들 .....	24
• 유대인 학살의 아픈 과거와 맞선 독일	
12. • 독서광 세종,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	26
•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도서관, 당나귀 도서관	
13. • 대학을 네 번 다닌 환경전문기자 .....	28
• 꿈의 도시, 학습도시 브라질 꾸리찌바	
14. • 수에즈 운하는 성공하고, 파나마 운하는 실패한 사람 .....	30
• 성공이 실패를 잉태하고 있다고?	
15. • 야생소년 빅토르의 운명 .....	32
• 타인에게서 배우는 인간	
16. • 영어 잘 하려면 새도잉(Shadowing) 하라 .....	34
• 반도체 신화를 만든 새도잉	
17. • 89세의 독서왕 신문배달 할아버지 .....	36
• 독서경영의 핵심은 책이 아니라 생각?	
18. •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해봤어' 학습법 .....	38
• 행동으로 부딪히면 배움이 오는가?	
19. • 미얀마 소녀 땡자 씨가 한국어를 공부한 이유 .....	40
• 왜 프랑스인들은 한국어를 공부하나?	





# Contents 목차

20. •6남매 모두를 하버드·예일 졸업시킨 비결	42
•유대인의 하브루타 교육법	
21. 무명의 복싱선수에서 세계적인 건축가가 된 안도 타다오	44
22. 안식년을 즐기는 사장들	45
23. 나이팅게일이 통계학자가 되기까지	46
24. 다산과 추사는 유배지에서 무엇을 했나?	48
25. 교실화폐를 아시나요?	49
26. 한국 엄마 미국 엄마	50
27. 덴마크식으로 살아보실래요?	51
28. 20대 성격이 70 이후의 운명을 결정한다면	52
29. 그라민은행이 여자들에게만 돈을 빌려주는 이유	53
30. 기계의 고장도 줄여주는 “감사합니다”	54
31. 손씻기를 주장하다 미친 사람 취급받은 사람	55
32. 수감자에 연간 2,300만원이나 써야 하나?	56
33. 타살률이 높은 나라, 자살률이 높은 나라	57
34. <시니어 패션반란> 패션이 인생을 바꾸나?	58
35. IQ를 높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	60
36. 마의 벽은 어떻게 깨지나	61
37.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들이 인물이 된다?	62
38. 우측통행인가? 좌측통행인가?	63
39. 우리 청소년의 고민은?	64
40. <연쇄 창업가> 창업도 하는 사람이 하는 이유	65





- 41. 택시회사에서 친절을 배운 병원 ..... 66
- 42. 나이가 들수록 외국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 ..... 68
- 43. 뻔뻔해야 외국어를 잘 할 수 있다? ..... 69
- 44. 가족이 중요하다 하면서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않는 사람들 ..... 70
- 45. 공부 잘하는 아이의 부모는 대화법이 다르다 ..... 71
- 46. 요리의 달인 강레오씨가 어떻게 농사의 달인이 되었나? ..... 72
- 47. 유치원 교사가 남자아이 이름을 많이 부르는 이유 ..... 74
- 48. 최민준 씨는 왜 남자 아이만 받는 미술 학원을 운영하는가? ..... 75
- 49. 대한항공이 비행기 사고 후 영어를 공용화 한 이유 ..... 76
- 50. 구자는 LS엠트론 회장은 왜 집에서 벌을 키우나? ..... 78



## 폐교에서 시작한 새로운 배움터

1980년 봄 5개 학급으로 문을 연 연무중학교(수원시 우만동 소재)는 한 때 36학급 규모로 커졌으나, 저출산과 구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학생 수가 급감했다. 급기야 2008년 2월에는 26회 졸업생 221명을 배출하며 문을 닫게 되었다. 이후 연무중학교라는 이름과 역사는 광고신도시로 옮겨졌지만, 학교 건물과 부지는 골칫거리가 되어버렸다.

이에 수원시는, 학교 부지를 매입해 시민을 위한 평생학습공간과 어린이들을 위한 외국어 마을로 활용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새로운 배움터를 만들었다. 수원시는 2008년부터 교육청과 논의를 시작한 뒤 총 350억 원을 투입해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이렇게 하여 수원시 평생학습관과 수원시 외국어 마을이 2011년에 탄생하였다.

## 아주대학교가 새로운 운영주체로 도약준비

9년 동안 수원시 평생학습관과 외국어 마을은 평생학습의 새로운 모델을 개척하며, 수원시민의 학교 외 학습을 맡아왔었다. 2017년 수원시가 유네스코로부터 ‘학습도시상’을 받게 하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 이제 그 발판 위에서 도약을 하기 위해 금년 9월 1일부터 수원시 최초의 종합대학인 아주대학교가 수원시 평생학습관과 외국어 마을을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아주대학교는 풍부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수원시민의 행복도를 받을림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며, 비대면 시대에서도 앞서가는 평생교육을 만들어 낼 것이다.

## 경영학박사, 인적자원 전문가가 관장에 부임

아주대학교 1회 졸업생이면서, 카이스트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프랑스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에서 객원교수로 근무한 바도 있는 조영호 아주대 명예교수가 새로운 관장으로 부임하였다. 그는 경영학에서 인적자원관리를 전공하고 있으며, 학회뿐만 아니라, 산업계와 지역사회와도 다양한 활동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수원시 평생학습관과 외국어 마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평생학습관과 수원시외국어마을은 조례 개정을 통해 2021.5.12. 두 기관이 정식으로 통합되어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으로 재탄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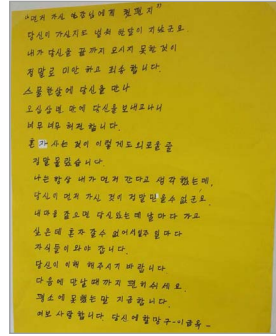
- 이금옥 할머니의 연애편지
- 마을에 화장실이 만들어지기까지

### 배움으로 삶을 가꾸는 사람 : 이금옥 할머니의 연애편지

부산시 남구 우암동에 사시는 이금옥 할머니는 60이 넘어 한글을 깨쳤다. 이금옥 할머니가 그 한글로 처음 쓴 긴 글은 먼저 떠난 남편에게 쓴 연애편지였다. 할머니 연세 71세였다. 할머니는 한글로 인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한글을 갖 배운 부산의 이금옥 할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을 생각하며 노란 종이위에 꼭꼭 눌러쓴 연서 한 장. 보는 이의 마음을 짙하게 하고 있다.

- 출처: 부산지방경찰청 홈페이지



### 배움으로 아름다움을 가꾸는 세상 : 마을에 화장실이 만들어지기까지

2000년 방글라데시의 모스모일(Mosmoil)이라는 작은 마을에서는 색다른 실험이 실시되었다. 이 마을은 화장실이 없어 사람들이 노천에서 일을 보기 때문에 위생이 엉망이었다. 정부에서는 화장실을 만들 수 있도록 보조금을 주고 시설을 공급했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방법을 바꾸어 보았다. 마을 사람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스스로 분석을 하게하고, 자원자를 모집하여 화장실을 하나씩 건설해나갔다. 그랬더니 마을 모두가 바뀌었다. 이때부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퍼진 ‘공동체주도의 전체위생’(CLTS: Community-led Total Sanitation)이 탄생했다.

### 조영호관장의 좌우시간~

“ 아는 사람만 알아서 찾아오는  
수원의 숨은 보물,  
수원시평생학습관  
도서관보다 소란하고  
카페보다 조용한  
나의 서재(書齋), 나의 Agora ”

- 손선희, 수원시평생학습관 교육후기에서 -

“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학이시습지 불역열호)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

- 논어 -

-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소원
- “마누라 하고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

## 배움으로 삶을 가꾸는 사람 :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소원

1910년 3월 26일 중국 뤄순(旅順) 감옥에서 안중근 의사가 순국하실 당시,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나 는 일본 관리의 물음에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아직 책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라 말씀하시고 읽고 있던 책의 나머지 부분을 다 읽으신 후 담담히 형장으로 들어가셨다.

“일일불독서 구중생형극(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힌다)”. 안중근 의사는 명심보감에 나오는 이 글을 1910년 2월과 3월 사이 중국 뤄순 감옥에서 쓰심.

## 배움으로 아름다움을 가꾸는 세상 : “마누라 하고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

1993년 “마누라 하고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고 외쳤던 삼성그룹의 신경영은 하나의 교육운동이었다. 이견희 회장은 1993년 6월부터 8월 사이 연인원 1,800명을 미국 로스앤젤레스, 독일 프랑크푸르트, 영국 런던, 일본 동경 등으로 불러 직접 강의를 하였다. 8월 이후에도 12월까지 국내에서 사장단과 임원 597명, 과·부장 520명, 사내강사 427명을 직접 교육했다. 그 후 ‘삼성인의 용어집’ ‘신경영 실천 가이드’ ‘지행 33훈’ 등 책자를 펴내 전 그룹 사원들을 어마어마하게 교육하였다. 그 결과 삼성의 조직 문화가 변화되었으며, 삼성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이견희 회장은 향년 78세의 나이로 2020년 10월 25일 별세하여 수원 선영에 묻혔다.

## 조영호관장의 좌우지간~

“

글쓰기는 생활이며,  
기록하고, 전달하고,  
표현하고, 나누어서  
행복을 찾는 것이다.

”

- 양창주, 수원시평생학습관 교육후기에서 -

“

처음 책을 읽을 때에는  
한 사람의 친구와 알게 되고,  
두 번째 읽을 때에는  
옛 친구를 만난다.

”

- 중극 격언 -

- 가방을 든 운전기사
-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공감교육’

## 배움으로 삶을 바꾸는 사람 : 가방을 든 운전기사

정신문 씨는 가방 끈이 짧은 사람이었다. 초등학교 4년을 중퇴한 그는 렌터카 회사에서 기사로 일했다. 그는 주로 수도권에 있는 기업체 연수원에 강사를 모시고 다녔다. 그러나 어느 운전기사와 달리 그는 강사가 강의하는 동안 양해를 구하고 강의실 뒷좌석에 앉아 강의를 들었다. 그것도 꼬박꼬박 메모를 하며 말이다. 그러다 갑자기 핑크를 낸 강사를 대신하여 강의를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진짜 강사가 되었다. 이러한 자기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기도 했다. ‘가방을 든 운전기사’(정신문 저, 서지원, 1997)

## 배움으로 아름다움을 바꾸는 세상 :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공감교육’

유엔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행복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별로 높은 점수를 못 받고 있다. 2020년 3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한국은 153개국 중 61위를 차지했다. 과거에는 50대를 기록했는데 후퇴한 것이다.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같은 나라가 계속 수위를 달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덴마크는 어린 아이들에게 ‘공감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키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덴마크는 1993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6세에서 16세에 이르는 아이들에게 공감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일주일에 한 시간씩 받도록 하고 있다. ‘Klassens tid’라고 불리는 덴마크의 공감 교육은 그리 복잡한 게 아니다. 상대방 감정을 읽어주고, 해결책을 함께 나누는 훈련이다. 언론과 교육학자들은 이 공감교육이 덴마크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보고 있다.

## 조영호관장의 좌우지간~

“

행복은 사소한 일에서 곧바로 즐거움을 알아채는 것이다.

”

- 휴 윌폴(뉴질랜드 소설가) -

“

‘누구나, 무엇이나, 어디나’는 ‘누구나학교’의 선언문이다.  
자유롭게 배움과 지식을 나누는 ‘누구나학교’는 시민 모두가 만드는 배움터다.  
밥알 하나는 작지만 뭉치면 밥 한 그릇이 되는 것처럼 거창한 배움이 아니라  
나만의 주제로 소소한 삶의 지혜를 나누면 된다.

”

- 이명선, 수원시평생학습관 교육후기에서 -

### 배움으로 삶을 가꾸는 사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을 만든 독서습관

11월 3일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결정되지 않아 혼란스럽다. 다수 득표를 한 바이든 후보는 승리를 선언했지만,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 후보는 승복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된다. 그는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미국을 하나로 뭉치게 한 리더였다. 선거에서 대립했던 정적까지 끌어안고 협치를 한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이다. 이러한 링컨에 대한 존경심을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감추지 않았다.

그런데 그의 리더십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통나무집에서 살았고, 9세 때 어머니도 잃었다. 그리고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부모는 링컨에게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었고, 그는 책 한 권을 빌리기 위해 먼 길을 오갈 정도로 독서에 흥미를 느꼈다. 링컨은 어렸을 때 다진 독서습관으로 독학을 해 27세에 변호사가 되었고 결국 미국에서 가장 존경 받는 대통령이 되었다.



- 출처: 이미지투데이

## • 가장 친절한 병원 만들기

### 배움으로 아름다움을 가꾸는 세상: 가장 친절한 병원 만들기

1982년에 경상북도 안동에 세워진 안동병원은 어려움이 많았다. 설립자 강보영 이사장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하다가 책방에서 우연히 일본 MK택시에 대한 책을 발견하게 되었다. 제일교포 유봉식 씨가 운영하는 일본 교토의 MK택시 성공비결은 친절이었다.

강보영 이사장은 '이거다' 싶었다. 그리하여 1992년부터 안동병원의 직원들이 택시회사에 가서 해외연수를 받게 되었다. 의사, 간호사, 기사, 행정직 모두 말이다. 처음에는 병원의 전문직이 택시회사에서 연수를 받는다는 것에 대한 저항이 있었으나, 그 저항은 금시 사라졌다. MK가 그만큼 수준 높은 회사였기 때문이다. 안동병원 직원 해외연수는 2015년까지 계속되었으며, 이제는 MK정신을 탐구하는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다. 안동병원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가장 친절한 병원'으로 평가받았으며, 한국의 병원문화를 개선하는데도 큰 기여를 했다.

### 조영호관장의 좌우시간~

“

똑똑하기 보다는 친절한 편이 낫다.

”

- 탈무드 -

“

뜨개질은 처음 해보는 거였지만,  
내가 뜬 작은 모자가  
어린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잘 배워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흔히 남자들은 뜨개질을  
잘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시도조차 안하려하는데,  
남자라도 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

- 공준택, 수원시평생학습관 교육후기에서 -

## 배움으로 삶을 바꾸는 사람: 비틀즈의 성공비결

1960년에서 70년까지 활동한 영국 리버풀 출신의 4인조 록밴드 비틀즈(Beatles). 그들은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로 평가받는 레전드다.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른 곡이 무려 20곡이나 된다. 4인조 멤버인 존 레논, 폴 매카트니, 조지 해리슨, 링고 스타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재능이 있다고 인정을 받았다. 그런데 그들이 단지 그들의 천재성으로 그런 큰 업적을 쌓았을까?

무명의 고등학교 록 밴드였던 1960년에 비틀즈는 독일 함부르크의 한 클럽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거기서 일하게 되었다. 급여가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무대가 훌륭했던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관객의 열렬한 사랑을 받았던 것도 아니었다. 다만, 그들이 누린 것은 엄청난 시간을 연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루에 여덟 시간씩 일주일에 7일을 꼬박 연주하고 실력을 갈고 닦았다. 그 뒤 영국으로 돌아온 비틀즈는 전혀 달라져 있었다. 1964년부터 히트곡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고 했던가?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했던가?



- 출처: Pixabay

## • 스페인 몬드라곤의 기적

### 배움으로 아름다움을 가꾸는 세상: 스페인 몬드라곤의 기적

1941년 스페인 바스크 지역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 부임해온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디아리에타 신부는 이곳에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로 했다. 회사를 설립했는데 주식회사가 아닌 협동조합이었다. 처음 ‘울고’로 출발한 협동조합은 ‘몬드라곤(Mondragon)’으로 발전했다. 주식회사와는 달리 협동조합은 1인 1표이고 이윤이 아니고 고용창출을 우선으로 한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평가 받는다. 자본주의 대안으로 출현한 여러 기관들이 사실 많이 실패를 했다. 그러나 몬드라곤은 경제위기 속에서도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제 몬드라곤은 협동조합 그룹이 되어 제조, 유통 금융, 지식서비스 분야에서 260개 협동조합과 8만 명을 거느린 대기업으로 굳건히 자리를 잡았다.

몬드라곤의 성공은 단지 이념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들은 성장과 고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부단히 혁신을 하고 있다. 그 혁신의 엔진이 몬드라곤 대학의 팀아카데미다. 이 아카데미에서는 학생들이 4년 동안 팀프로젝트만 수행한다. 공부를 하면서 실질적인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교수는 강의를 하지 않고 팀활동 코칭만 한다. 그래서 아예 교수가 없다고도 할 수 있다. 대학의 혁신이 지역사회의 혁신이고, 지역사회가 혁신이 대학의 혁신이다.

### 조영호관장의 좌우지간~

“

몬드라곤의 비밀은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노력이 아니라  
각자의 생존을 위한 싸움입니다.  
바로 이러한 협력심이  
우리의 막대한 원동력이 됩니다.

”

- 후안 마누엘 몬드라곤 노동금고 대표 -

“

글쓰기 강좌를 하면서 느낀 것은  
글쓰기 주제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소재를 찾아  
글을 써보고 싶습니다.  
많은 인간관계가 영상,  
스마트폰으로 이뤄지는데,  
대화과 글을 통해서 소통하는  
그런 관계가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김기원, 수원시평생학습관 교육후기에서 -

## 배움으로 삶을 바꾸는 사람: 무학이 성공비결?

파나소닉으로 개명한 옛 마쓰시다전기의 설립자 마쓰시타 고노스케(1894-1989)씨는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불린다. 마쓰시다전기를 세계적인 가전업체로 키웠을 뿐만 아니라, 대리점과의 관계, 노사관계를 훌륭하게 이끌어 왔기 때문이다.

그는 성공비결이 무엇이나는 직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첫째는 가난이고, 둘째는 허약한 것이고, 셋째는 무학입니다. 어렸을 때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평생 부지런히 일을 했고, 몸이 약골이라 항상 건강에 유념했으며,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 누구에게라도 언제든지 배우려 했지요.”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정말 자신의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언제나 누구에게나 겸허하게 배우는 것이 습관이 되어있었다. 그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일본의 정치지도자를 양성하는 ‘마쓰시타 정경숙’이라는 정치학교를 설립하여 정치지도자를 양성하는 일도 했다.



마쓰시타 고노스케(1894-1989)

- 출처: Wikipedia

## 배움으로 아름다움을 바꾸는 세상: 햄버거 대학을 아세요?

1955년 미국의 일리노이주 데스플레인스라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맥도날드는 세계 제일의 외식 기업으로 자리를 잡았고, 미국의 상징 중 하나가 되었다. 현재 전 세계 120개국에 3만 7천개의 매장이 있고, 매일 찾는 고객 수만 7천만 명에 이른다. 맥도날드에서 파는 식품은 특별한 것이 없는 평범한 패스트푸드이다. 그런데 어떻게 맥도날드가 다른 경쟁자를 이기고 부동의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을까?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교육이다. 맥도날드는 이미 1961년 ‘햄버거 대학’이라는 것을 만들어 직원들을 교육했다. 기업이 스스로 직원들을 교육한다는 생각이 거의 없을 때였다. 맥도날드는 직원뿐만 아니라 가게를 열려고 하는 점주도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햄버거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은 ‘햄버거를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한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햄버거 만드는 사람’이라 한다. 이러한 교육 덕분에 맥도날드 가게에서 단지 패스트푸드가 팔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품질, 서비스, 청결, 가치(QSC&V)라는 맥도날드 정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 • 햄버거 대학을 아세요?



Hamburger University (미국 시카고, 2018)

- 출처: Wikipedia

## 조영호관장의 좌우지간~

“

넓게 보고  
타인에게 길을 물으면  
길을 잃는 법이 없다.

”

- 마쓰시타 고노스케 -

“

코로나야 코로나야  
무슨 미련이 남아  
아직도 못 떠나고  
반기는 이도  
아쉬워하는 이도  
하나 없는데  
백신 맞고 가려면  
많이 아플터이니  
흔적 없이 떠나거라!

”

- 김순이(수원제일평생학교 학생),  
'글자를 만난 속자씨 인생나무'에서 -

## 배움으로 삶을 가꾸는 사람: 머리하는 여자인가 헤어디자이너인가?

준오헤어의 회장 강운선씨는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다. 그녀는 고등학교 1학년도 마치지 못하고 돈을 벌이를 해야 했다. 기술학교에서 미용을 배워 20살에 미용실을 차렸다. 그러나 그녀는 여느 미용사가 아니었다. “미용사는 좋은 직업인데 왜 우리가 천대를 받아야 할까? 왜 우리는 머리하는 아줌마로 취급되어야 할까?” 하고 고민했다. 제대로 된 교육기관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영국의 비달사순아카데미를 찾았다. 집을 팔아 마련한 1억5천만 원을 가지고 직원 15명과 함께 비달사순아카데미로 유학을 가 제대로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는 비달사순의 교육프로그램을 한국에 도입하여 ‘머리만지는 사람’을 ‘헤어디자이너’로 탈바꿈시켰다.

준오헤어는 청담동에 멋진 건물이 있으며, 전국에 150개의 매장과 직원 3천명을 거느린 우리나라 최대의 미용업체이다. 직원 중에는 역대 연봉을 자랑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

**JUNO HAIR** depuis 1982
ABOUT
SALON
MEMBERSHIP
COMMUNICATION
RESERVATION
J MARKET

스토리
CEO인사말
브랜드
오시는 길

### CEO 인사말

준오라는 이름으로 미용 사업에 뛰어들어 지 35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준오헤어는 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하는 뷰티 전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  
준오헤어는  
토탈 뷰티를 추구하는 뷰티 전문가 집단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미용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며 고객의 아름다운 삶을 창조하고 만족을 드리는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지요. 최고의 서비스를 위해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준오헤어의 ‘아카데미’ 시스템이아발로 준오를 준오답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미용은 헤어스타일을 통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기술이며, 아름다움은 사람에게 긍정의 힘을 부여합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소중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준오헤어가 항상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준오헤어 대표이사

*강운선*



준오헤어 홈페이지([www.junohair.com](http://www.junohair.com))

## • ‘시민과학’을 아세요?

### 배움으로 아름다움을 가꾸는 세상: ‘시민과학’을 아세요?

박쥐를 연구하는 ‘시티벳’이라는 연구단(재단법인 숲과나눔 지원)이 있다. 여기에는 진짜 과학자도 있지만 28명의 시민들이 주축이다. 그러나 시민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참여하기 때문에 이들도 ‘시민과학자’라 불린다. 시민 과학자들은 9팀으로 나뉘어서 초음파 장비를 가지고 다양한 장소에서 박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시민과학자들은 도시 개발로 서울에서는 박쥐가 거의 사라졌지만 그러나 천호대교 주변과 한강변에는 박쥐가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희귀종인 줄망박쥐를 발견한 것은 상당한 성과였다.

이제는 과학도 ‘과학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2000년대 초에 등장한 ‘시민과학’이 어느 사이 세계적인 현상으로 퍼지고 있다.

### 조영호관장의 좌우지간~

“

만약 당신이 진실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생애에 적어도 한번은 가능한 한 모든 것을 깊게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

- 르네 데카르트 -

“

어머니 가르침: 1. 정직해라, 2. 형제간에 잘 협력해라, 3. 남 하고 싸우지 마라.  
아버지 가르침: 1. 정직해라, 2. 부지런해라, 3. 공부 열심히 해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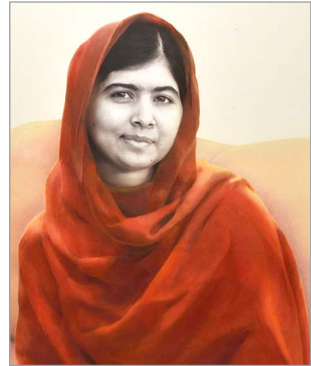
- 이민우(89세)씨의 그림에서, 제10회 대한민국 청춘미술대전 우수상(치매미술치료협회 제공) -

**배움으로 삶을 가꾸는 사람:****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총을 맞은 아이**

2012년 10월 9일 화요일, 역사 시험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탄 '말랄라'와 그의 친구들 앞에 청년 2명이 나타났다. "말랄라가 누구냐?" 하는 고함 소리가 났다. 함께 있던 아이들이 겁에 질려 말랄라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탕! 탕! 탕!" 세 발의 총성이 울렸다. 버스 안은 난장판이 되었다. 말랄라는 심하게 상처를 입었다.

여자 아이 말랄라 유사프자이는 아프가니스탄 국경과 가까운 파키스탄의 북부마을에서 태어났다. 그 지역의 정권을 장악한 탈레반은 여성이 학교에 가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말랄라 아버지는 말랄라를 학교에 보냈다.

이에 대한 탈레반의 방해 행위는 점점 심해졌다. 말랄라는 BBC 방송에 이런 현실을 알리는 글을 실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탈레반 청년이 말랄라에게 총을 겨누는 것이다. 요행히 생명을 건진 말랄라는 아동교육을 위한 인권운동가가 되었다. 그가 17세인 2014년, 최연소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되었다.



말랄라 유사프자이(1997~)

- 출처: commons.wikimedia.org

**배움으로 아름다움을 가꾸는 세상: 기적의 놀이터는 무엇이 다른가?**

전남 순천에 가면 '기적의 놀이터'라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다. 2016년에 조성된 '엉뚱발뚱'이란 이름의 놀이터에는 그 흔한 미끄럼틀도, 그네도, 시소도 없다. 넓은 모래밭과 팽나무 고목, 상하수도관 위로 잔디가 덮인 언덕, 마중물을 넣을 수 있는 옛날식 펌프와 얇은 개울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 놀이터엔 평일엔 200여 명, 주말엔 600여 명의 어린이가 찾았다.

기적의 놀이터는 어른 전문가가 만든 놀이터가 아니다. 어린이 200명이 기획단으로 참여해서 그들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것이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놀이터는 '위험스러워야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스스로 만들고 부수고, 함께 부대끼고 노는 장소여야 한다고들 생각했다. 기적의 놀이터는 만드는 과정이 학습이었고, 놀이터 자체가 학습공간이 되었다. 순천은 2019년 말까지 모두 4개의 기적의 놀이터를 더 만들어 이제 총 5개가 되었다.

## • 기적의 놀이터는 무엇이 다른가?

### 조영호관장의 좌우지간~

“

한 명의 아이, 한 명의 선생님, 한 권의 책, 하나의 펜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교육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교육이 먼저입니다.

”

- 말랄라 유사프자이, 2013. 7. 12. 유엔 연설, 당시 16세 -

“

아이들에겐 멍들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다치지 않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된다.  
오히려 온실 속 화초처럼 안전하게만 자란 아이가  
위험이 뭔지 배우지 못해 더 위험하다.

”

- 편해문, 민속학자, 기적의 놀이터 기획자 -

## 배움으로 삶을 바꾸는 사람: 권투선수 부적격자 무하마드 알리

무하마드 알리는 복싱선수로서 필수적인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 주먹 크기, 팔 길이 그리고 펀치력이 다른 선수들보다 못했다. 그가 프로로 전향한 후 경기를 가진 당시 헤비급 챔피언 소니 리스틴과 비교할 때 더욱 그러했다. 도박사들은 1964년 두 사람의 경기를 7:1이나 8:1로 리스틴의 일방적인 승리를 점쳤다. 그래서 경기장은 반박에 차지 않았다. 그러나 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리스틴의 전설적인 주먹은 맥을 추지 못했다. 경기는 6회 후 리스틴의 기권으로 끝났다.

이렇게 시작된 알리의 권투는 곧 전설이 된다. 1960년부터 81년까지 21년의 선수 생활을 통해, 57승 37KO 승, 5패의 기록을 남겼고, 통산 19차 타이틀 방어, 세 차례 헤비급 챔피언 등극이라는 대기록을 남긴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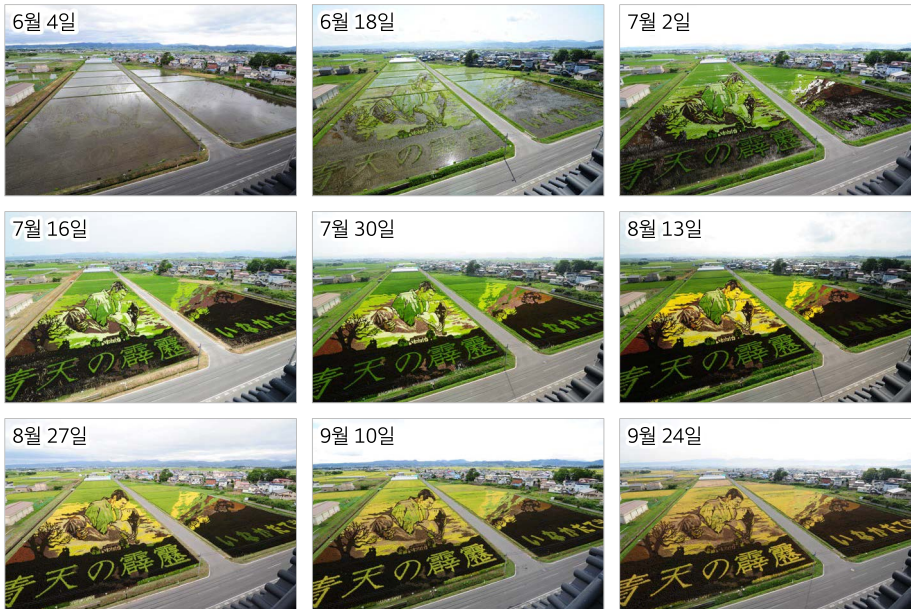
알리는 권투선수로서 약점이 많았지만 그 약점에 연연하지 않고, 남이 갖지 못한 자신만의 강점을 갈고 다듬었다. 민첩함, 유연성, 그리고 두뇌플레이 능력이 그의 강점이었다. 모두가 펀치력을 키우고 있을 때 그는 풋워크로 피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학습했다. 모두가 난타전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는 심리전을 연구하고 배웠다. 그 결과 ‘나비같이 날아 벌같이 쏜다.’는 알리식 전략을 구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 배움으로 아름다움을 바꾸는 세상: 예술작품으로 변한 시골마을의 논

일본의 본 섬인 혼슈의 최북단에 위치한 아오모리현. 그 곳에 인구 17만정도가 사는 히로사키시가 있다. 여기서는 벼가 자라는 논이 한 폭의 그림이다. 노령화로 침체되고 있는 시를 살리기 위해 1993년부터 주민들이 지혜를 모아 논에 다양한 색깔의 벼를 심어 벼가 자라면서 그림으로 변하게 한 것이다. 이것을 주민들은 탄보아트(田んぼアート: 논예술)이라 부른다. 매년 주제를 선정해 그에 맞는 그림을 ‘재배’한다. 이 지역이 일본에서 북방 벼농사의 발상지라는 역사성도 활용했다. 주민들은 이 모든 것을 학습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스스로 해냈다. 그 덕분에 히로사키시는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 • 예술작품으로 변한 시골마을의 논

일본 아오모리현 히로사키시의 논이 변하고 있는 모습(2015년)



- 출처: [www.vill.inakadate.lg.jp/docs/2013050200014/](http://www.vill.inakadate.lg.jp/docs/2013050200014/)

## 조영호관장의 좌우지간~

“

눈앞에 보이는 높은 산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의 신발 안에 있는 작은 돌이 주범이다.

”

- 무하마드 알리 -

“

우리 누구도 우리 모두보다 현명하지 못하다.

”

- 켄 블렌차드, 리더십 연구가 -

## 배움으로 삶을 가꾸는 사람: 목숨을 걸고 일주일을 걸어서 학교가는 아이들

인도 서북쪽, 해발 5천 미터 고지에 있는 오지 ‘잔스카’ 마을. 이곳 아이들은 얼음이 꽂꽂 얼어있는 2월이면 학교 갈 준비를 한다. 그런데 그들은 학교가 있는 ‘라다크 레’까지 절벽을 타고, 강을 건너서 꼬박 일주일을 목숨을 걸고 걸어야 한다. 보통 때는 강물을 건널 수가 없어 꽂꽂 얼어 있을 때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3형제 중 유일하게 학교에 가게 된 다카르, 마을 친구 켈럽도 함께 간다. 이들은 10살이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아빠들이 나선다. 아빠들은 먹을 음식과 침낭을 싸서 짊어지고 간다. 아빠가 없는 양두는 73세인 할아버지가 동행한다. 영하 20도의 추위에 맨살로 강을 건너는 양두의 할아버지는 혼자 걷기도 힘든데 짐을 옮기고, 손자도 건네야 한다. 이들은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따뜻하게 잘 수도 없다. 옷이 헐리고 동상이 살을 뚫는다.

아이들이 학교에 도착하면, 어른들은 서둘러 왔던 길을 밟아 돌아온다. 늦으면 강물이 녹아 귀가가 불가능해진다. 학교에서 일 년을 보낸 아이들은 강이 다시 어는 겨울에 히말라야 마을로 돌아온다. 잔스카 마을 사람들은 왜 이렇게 험난한 여정을 반복하는 것일까? 그들은 말한다. “배워야 미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KBS 파노라마에서, 2014. 4. 17 방영>

## 배움으로 아름다움을 가꾸는 세상: 유대인학살의 아픈 과거와 맞선 독일

나치 시대 독일은 유대인 학살이라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600만의 유대인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후 독일은 이런 자신의 치부를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다. 홀로코스트는 과거의 일이고 특정 집단이 저지른 일이라고 발뺌하지도 않았다. 독일은 사과하고 또 사과했고, 전 국민을 상대로 교육하고 교육했다.

독일은 주변국과 공동으로 역사를 조사하고 사실을 밝히며, 철저하게 피해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철저하게 역사교육을 하였고, 모든 학살 현장을 기념관 화하고 끔찍한 양민들의 집 앞 보도에는 그들의 이름을 새겨 시민들이 일상에서 과거의 아픈 역사를 되새기게 했다. 편견과 증오가 없는 새로운 독일을 학습을 통해 구현해 간 것이다. 그 결과 오늘날 독일은 외국인 난민수용에 가장 긍정적인 나라가 되었고, 이스라엘이 위험하다고 느낀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이민을 가는 나라가 되었다.

## • 유대인 학살의 아픈 과거와 맞선 독일



독일 베를린, 홀로코스트 기념관

- 출처: Pixabay

### 조영호관장의 좌우지간~

“

학교가 크고 좋아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의사가 되고 싶어요.

”

- 켈렙(10), 히말라야 잔스카 마을의 아이 -

“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자,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될 것이다.

”

- 조지 산타야나(스페인 출신의 미국 철학자) -

## 배움으로 삶을 가꾸는 사람: 독서광 세종,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세종대왕은 어렸을 때부터 독서광이었다. 밥 먹을 때도 아플 때도 책을 읽었다. 어린 세종이 너무 책에 빠져 있어 그의 건강을 염려한 아버지 태종이 “너는 왕이 될 사람인데 어찌 건강을 돌보지 않고 책만 보고 있느냐?”며 야단을 치며, 신하들에게 세종의 방에서 모든 책을 치우라고 명했다.

자신의 건강을 염려해주는 아버지의 마음은 고맙지만, 세종은 책 없는 삶을 살기가 힘들었다. 그런데 ‘이런~’ 병풍 뒤에 책이 한권이 남아있질 않는가. 세종은 이 책을 숨겨두고 읽고 또 읽었다. 그러면서 그는 깨달았다. “입은 책도 여러번 읽으니 새로운 깨달음이 있구나.”

세종의 독서습관은 그가 왕으로 살아가는 30년 동안에도 그대로 지속되었다. 그 결과 그는 한글창제 뿐만 아니라, 문학, 농학, 의학, 음악 모든 영역에서 독보적인 업적을 남겼다. 심지어는 과학기술에서도 말이다. 일본 도쿄대의 이토 준타로 연구팀이 1983년에 편찬한 ‘과학사기술사사전’에는 ‘C4 J0 K21 O19’라는 암호 같은 구절이 있다. 여기서 C는 China, J는 Japan, K는 Korea, O는 Others를 뜻하며, 뒤의 숫자들은 15세기 초엽부터 중엽까지 세계적으로 눈여겨볼 과학적 성취 건수를 의미한다. 대국 중국이 4건이고, 일본이 0건인데, 한국이 21건! 놀라울 뿐이다.



- 출처: Pixabay

## •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도서관, 당나귀 도서관

### 배움으로 아름다움을 가꾸는 세상: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도서관, 당나귀 도서관

남미 콜롬비아의 초등학교 교사 루이스 소리아노(Luis Soriano) 선생님은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를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도 읽을 책도, 도서관도 없는 경우가 많다. 그는 당나귀 두 마리를 구해 그들 등에 책을 싣고 주말과 학교 일이 없는 날 아이들을 찾아 나섰다. 당나귀의 이름도 있다. 첫째는 알파고, 둘째는 베토이다. 합쳐서 알파베토. 당나귀 두 마리와 소리아노 선생님은 길을 나서면 왕복 10Km 정도 되는 산간벽촌으로 간다. 자동차도 쉽게 가기 어려운 길이라 당나귀가 안성맞춤이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도서관 그리고 움직이는 도서관인 '당나귀 도서관(Biblioburro)'이다. 1997년에 책 70권으로 시작한 당나귀 도서관은 그 후 기증을 받아 책이 수천 권이 되었다. 아이들에게 고루고루 책을 나르게 된 것이다. 당나귀 도서관이 나타나면 콜롬비아 아이들은 노래를 부른다. "마침내 루 소리아노 선생님이 오시네." 그리고 아이들의 가슴속에는 꿈이 피어난다. 은행가가 되는 꿈, 교사가 되는 꿈, 공무원이 되는 꿈~ <EBS 세계테마기행, 2010.11.2 방영>

### 조영호관장의 좌우지간~

“

百讀百習(백번을 읽고 백번을 쓴다)

”

- 세종, 세종실록 -

“

나의 희망은 어린이들이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만들 수 있도록  
좋은 가치관과 상상력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

- 루이스 소리아나, 당나귀 도서관 창시자 -

## 배움으로 삶을 가꾸는 사람: 대학을 네 번 다닌 환경전문기자

MBC 걸프전 종군 기자로 일했던 박수택 기자는 특이한 점이 많다. 그는 해외출장을 다녀올 때 남은 출장비를 회사에 반납을 했으며, 회식 자리도 2만원이 넘는 자리는 가질 않았다. 그가 SBS 1기로 자리를 옮겨 환경전문 기자가 되었다. 그는 평생 현장에서 뛰는 기자가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노조위원장까지 지냈다.

박수택 기자는 대학을 여러 번 다녔다. 원래 전공이 경영학이어서 경영학과를 나왔다. 그리고는 직장생활을 하며 방송통신대에서 중국어를 새로 공부했다. 중국어과를 졸업한 후엔 환경보건학과를 졸업했다. 그러곤 또 관광학과도 다녔다. 경영학, 중국어, 환경보건학, 관광학, 그는 학사학위만 4개다. “하나를 했으면 박사도 하고 남겠다.”는 친구들의 지적에 그는 말한다. “기자는 넓게 알아야 해! 그렇지만 제대로 알아야지.” 그는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을 아무지게 비판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논설위원이 되어 현장 취재를 못하게 되었고, 방송사를 나오게 되었다.

## 배움으로 아름다움을 가꾸는 세상: 꿈의 도시, 학습도시 브라질 꾸리찌바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해안 길로 400Km쯤 남쪽에 위치한 꾸리찌바(Curitiba)시. 그 곳에서는 시민들이 원통으로 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요금을 미리 계산하고, 편하게 기다리다가 버스를 탄다. 사실 별로 기다릴 필요도 없다. 2분마다 버스가 오기 때문이다. 버스를 몇 번 갈아탄다고 해도 요금은 한 번만 내면 된다. 그래서 결국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 지하철은 없지만, 버스가 편리하니 시민들 4분의 3이 버스를 이용한다.

쓰레기는 시민들이 치운다. 시민들이 쓰레기 처리장으로 쓰레기를 가져오면 버스 쿠폰을 주거나, 식자재가 담긴 봉투를 준다. 식자재는 농민들을 위해



1992년 최초로 세워진 '지혜의 등대' 도서관

- 출처: Wikipedia

## • 꿈의 도시, 학습도시 브라질 꾸리찌바

시가 구입해 놓은 잉여상품이다. 꾸리찌바 시민의 70%가 쓰레기 운반에 동참하고 있다. 이 비율을 따라갈 도시가 없다. 선진시민의식을 자랑하는 독일도 30%에 불과하다. 꾸리찌바는 가히 세계 최고의 친환경도시이며, 가장 선진적인 인간중심 도시이다.

꾸리찌바 시장을 세 번이나 중임한 자이메 레르네르(Jaime Lerner)는 이 모든 것을 시민들과 함께 했다. 시행착오를 거쳐 가며, 시민들과 연구하고 학습하며 꿈의 도시를 만들어나갔다. 꿈의 도시를 만드는 일이 계속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부터 학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시에서 작은 도서관을 동네에 만들기 시작했다. 이름 하여 '지혜의 등대'(Farol des Saber) 도서관이다. 꾸리찌바는 이렇게 하여 전 세계에서 배우러 오는 학습장이 되었다.

### 조영호관장의 좌우지간~

“

기자는 '시서유소납노소'의 입장에서 기사를 써야 한다.  
기자는 시민, 서민, 유권자, 소비자, 납세자, 노동자, 소외자를 위해,  
즉 1%가 아닌 99%를 위해 싸워야 한다.

”

- 박수택, 전 SBS 기자 -

“

공동체와의 연대는 단순히 좋은 협상 능력만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이해하고 공감할 때  
비로소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

- 자이메 레르네르, 브라질 꾸리찌바 전 시장 -

## • 수에즈 운하는 성공하고, 파나마 운하는 실패한 사람

### 배움으로 삶을 가꾸는 사람: 수에즈 운하는 성공하고, 파나마 운하는 실패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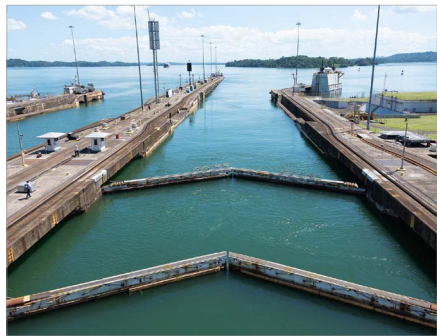
파나마 운하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해주는 통로이다. 이 운하를 뚫음으로써 미국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2만800Km의 뱃길이 8,320Km로 단축되었다. 파나마 운하는 19세기 중반 프랑스인 페르디낭 드 레셉스(Ferdinand de Lesseps)에 의해 계획됐다. 레셉스는 수에즈 운하를 건설한 사람이었다. 비슷한 일을 해보았기 때문에 그는 파나마 운하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다. 7년 내 개통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파나마 운하는 좀처럼 진전이 되지 않았다. 7년은 고사하고 9년이 지나도 진전이 없어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다. 레셉스의 회사도 파산하고 말았다. 안타까운 것은 이 기간 동안 2만 7천명이나 되는 인부들이 사망한 것이다.

레셉스가 수에즈 운하 건설을 통해 배운 기술은 파나마 운하 건설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 수에즈 운하는 평지에서 공사를 해야 했으나, 파나마 운하는 높은 산을 넘어야 했다. 수에즈 운하는 사막 지역이라 토목공사가 쉬웠는데 파나마 운하를 파는 토목공사는 딱딱한 흙과 강한 바위와 싸워야 했다. 신공법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했다. 게다가 말라리아라는 풍토병과 싸워야 했다. 레셉스가 망한 후 결국 운하 건설에 경험이 없는 미국인들이 새로운 발상으로, 계단식으로 운하를 완공했다. 과거에 배운 것을 버리는 것, 때로는 그것이 더 큰 배움이다.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 출처: Pixabay



## • 성공이 실패를 잉태하고 있다고?

### 배움으로 아름다움을 가꾸는 세상: 성공이 실패를 잉태하고 있다고?

에임스(Ames)라는 할인점 매장은 1958년 미국 동부 코네티컷 주에서 출발했다. 소도시와 농촌에서 공장형 할인점을 개척한 것이다. 방직산업이 지고 소매업이 뜨는 새 시대를 그들은 미리 내다 보고 있었다. 샘 월튼(Sam Walton)이 아칸소주에서 월마트를 시작하기 10년 전이었다.

승승장구하던 에임스가 1980년대 중반부터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회사 내부는 시끄러웠고, 매출액을 떨어졌다. 결국 이 회사는 2002년 청산절차에 들어가고 말았다. 잘 나가던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회사나 개인이나 잘 나가다보면, 자만심에 빠지고 현실에 안주하게 된다. “그냥 하던 대로 편하게 하자.” 이런 마인드가 생기는 것이다. 캐나다의 대니 밀러(Danny Miller) 교수는 그래서 성공의 역설을 이야기했다. 성공이 실패를 잉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리스 신화에 빗대어 이러한 현상을 ‘이카루스 패러독스’라고 부르기도 했다.

### 조영호관장의 좌우지간~

“

전승불복 응형무궁(戰勝不復 應形無窮)  
전쟁에서 승리는 반복되지 않으니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라.

”

- 손자, 손자병법 -

“

성공은 실패를 잉태하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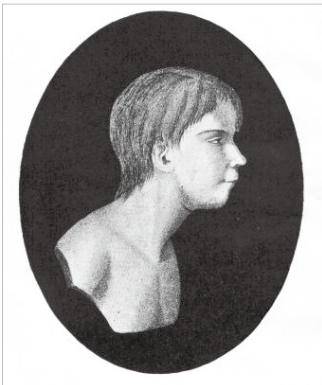
- 대니 밀러, 캐나다 경영학자 -

## 배움으로 삶을 바꾸는 사람: 야생소년 빅토르의 운명

1800년, 프랑스 남쪽 지방의 아베롱(Aveyron) 계곡에서 야생 상태의 한 아이를 잡게 되었다. 그는 12세 정도로 추정되었다. 인간의 도움 없이 야생에서 홀로 자란 아이는 몸은 날렵했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프랑스인들은 그에게 이목을 집중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인지라 인간의 지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그가 언어만 좀 배운다면, 보통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신기한 이야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말이다.

그를 농아 학교에 보내 말을 가르치려 했으나 실패했고, 인간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그를 다시 야생으로 보낼 수도 없고 고민하고 있을 때 장 이따르(Jean Itard)라는 의사가 나서 그를 끝까지 돌보았다. 그가 겨우 '오' 자에 잘 반응하여 이름을 빅토르(Victor)라고 지었고, 글자와 발음을 익혔다. 다소간의 진전은 있었으나 결코 제대로 된 소통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빅토르는 40세에 사망했다.

빅토르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은 인간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다. 인간 사회를 벗어난 인간의 존재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인간은 사회 속에서 배워지 않으면 그 지성이 과연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야생아 빅토르의 첫 번째 초상화(온몸에 상처 투성이임)

- 출처: commons.wikimedia.org



1970년에 개봉된 영화 '야생아(l'enfant sauvage)'에 나오는 빅토르와 이따르 선생님

- 출처: blog.naver.com/bonishidream/70057651645



## • 타인에게서 배우는 인간

### 배움으로 아름다움을 가꾸는 세상: 타인에게서 배우는 인간

사람은 어떻게 배우게 될까? 1950년대까지는 부모들의 상과 벌에 의해 아이들이 배운다고 생각했다. 동물들이 먹이를 얻기 위해 배우는 것처럼 말이다. 스탠포드 대학 반두라(Albert Bandura)교수는 여기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상과 벌이 없어도 인간은 관찰하고 모방하는 것으로도 배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었다. 물론 이런 생각을 반두라 교수가 처음 한 것은 아니지만,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이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로 했다.

1960년대 초 반두라교수팀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한 그룹에서는 보보인형이라고 하는 오투기 형태의 풍선 인형을 어른이 망치로 치고, 집어 던지고 하는 영상을 보게 했다. 다른 그룹에서는 보보인형을 얌전히 다루는 어른의 모습을 보게 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에서는 아이들이 그냥 장난감만 가지고 놀게 했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다른 방으로 옮겨 보보인형을 가지고 놀게 했다. 거기에는 장난감 망치와 총 등이 같이 있었다. 폭력적인 영상을 본 아이들은 보보인형을 거칠게 다루었다. 영상에서 본 어른보다 더 거칠게 말이다. 다른 그룹의 아이들은 보보인형을 얌전하게 다루었다. 이것이 모방학습이고, 사회적 학습이다. 사람은 타인의 행동을 보고 배운다. 이는 시사점이 크다.

### 조영호관장의 좌우지간~

“

인간의 마음은 원래 백지 상태이지만,  
개 개인의 경험과 교육을 통해 밑그림이 그려진다.

”

- 존 로크, 영국의 철학자 -

“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

-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 철학자 -

“

아이 보는 데는  
찬물도 못 마신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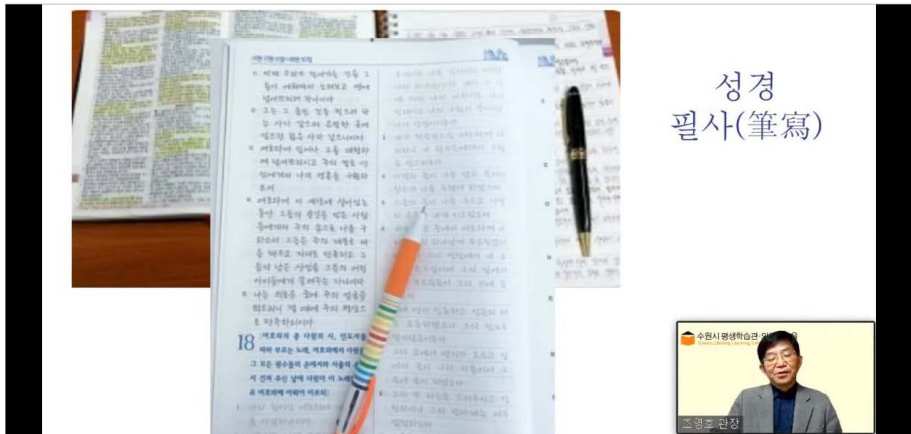
- 한국 속담 -

## 배움으로 삶을 바꾸는 사람: 영어 잘 하려면 새도잉(Shadowing)하라

"해외와 친구들과 비교되진 않을까 늘 걱정했어요. 그저 꾸준히,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었죠." 해외 체류 경험이 전문한 하태경(서울대 경영학과 1년)씨는 고 1 때 세계예능교류협회 주최 대한민국 학생 영어말하기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한국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자'는 주제 아래 직접 쓴 글을 바탕으로 연설하는 행사였다.

하씨는 "영어 말하기는 알리려는 내용 못지않게 전달 방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우열이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은 '발음과 억양 실력'이기 때문. 그는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평소 독해 문제를 풀 때마다 지문을 소리 내어 읽었다. 듣기 공부를 할 때 문장을 하나씩 따라 읽는 일명 '새도잉(shadowing)' 기법을 활용했다. 특히 이 단계에선 하나의 주제를 놓고 강연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토플(TOEFL) 리스닝 교재가 큰 도움이 됐다.

영어 강연 동영상도 수시로 찾아봤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힐러리 클린턴(65) 미국 국무부장관의 연설. "여성이면서도 리더십을 갖추고 국정을 이끈다는 점이 멋졌어요. 영어 말하기를 잘하고 싶다면 롤모델로 삼을 만한 인물을 정한 후 그 사람의 연설을 흉내 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선일보, 2012. 12. 26>



- 출처: [youtu.be/4Vy47\\_uG2Ro](https://youtu.be/4Vy47_uG2Ro)



## • 반도체 신화를 만든 새도잉

### 배움으로 아름다움을 가꾸는 세상: 반도체 신화를 만든 새도잉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씨는 고집적 반도체 사업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았다. 이 분야가 새로운 분야이다 보니 전문가들을 만나 보아도 시원스럽게 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가 없었다. 1982년 말 동경으로 건너가 심사숙고를 한 끝에 결론을 내렸다. “고집적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다!” 1983년 2월의 선언이었다.

삼성의 참모들은 그 때부터 자금을 마련하고, 공장부지를 확보하고, 기술을 도입하고 부산하게 움직였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었다. 고급기술자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들은 인원충원을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 회사를 차리고, 재미과학기술자를 비롯한 동양인 엔지니어 32명을 뽑았다. 그들이 첫 작품인 64K DRAM 개발에 성공했다. 그 여세를 몰아 그들은 256KDRAM을 개발하기로 했다. 그런데 경영진들은 걱정이었다. 미국에서 뽑은 고급인력들이 이탈을 한다면 큰 낭패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삼성에서는 국내에서 우수한 인재 32명을 뽑아 미국으로 보냈다. 그들은 미국에 있는 기술자들을 그림자처럼 1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1:1로 기술을 배워왔다. 그 결과 1메가 DRAM과 4메가 DRAM은 미국팀과 경쟁에서 이겨냈다. 삼성의 반도체 산업은 이런 학습으로 세계정상에 오를 수 있었다.

### 조영호관장의 좌우시간~

“

외국어는 얼마나 꾸준히 집중적으로 반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저 보면 싱겁기 짝이 없는 말이죠.

어느 외국어건 하루 13~15시간씩 6개월에서 1년만 지속적으로 들으면 누구나 귀가 트입니다.”

- 최정화, 외국어대 통역대학원교수, 한국인 최초 국제회의 통번역사 -

“

Shadowing이란 그림자처럼 따라 다닌다는 뜻으로 외국어를 배울 때

원어민의 언어를 그대로 반복적으로 따라 하거나,

선배나 앞선 사람을 모델로 하여 그들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여 학습하는 것.

”

- 조영호 정리, 수원시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 관장 -

**배움으로 삶을 가꾸는 사람: 89세의 독서왕 신문배달 할아버지**

2014년 8월 7일 SBS의 ‘세상에 이런 일이’에 출연한 오광봉 할아버지는 82세의 나이인데도 새벽바람을 쐬면서 신문배달을 하고 계셨다. 그 연세에 신문배달을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는 신문 배달을 마친 후엔 대부분의 시간을 독서로 보낸다 하니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신문배달을 통해 한 달에 번 돈 50만원 정도에서 30만원은 생활비로 쓰고, 20만원은 책값으로 쓴다고 했다.

오광봉 할아버지가 읽는 책은 쉬운 책들이 아니다, 몽테뉴의 ‘수상록’, 스티븐 핑커의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같은 무게 있는 책들이다. 이렇게 책을 사서 읽다보니 책이 집안에 쌓여 문제가 생겼다. 그러던 차에 부산 감천동 아미성당에서 도움을 주어 2018년 4월 23일 북카페를 열게 되었다. 책이 무려 3,300권이냐 되었다. 89세가 된 지금도 그는 신문배달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책 읽는 것도 계속 하고 있다. 일하는 것이 즐겁고 또 책이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 출처: [youtu.be/JJpingXjQgQY](https://youtu.be/JJpingXjQgQY)



## • 독서경영의 핵심은 책이 아니라 생각?

### 배움으로 아름다움을 가꾸는 세상: 독서경영의 핵심은 책이 아니라 생각?

천연유기농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빌리브네이처(회사 이름은 '잘론네츄럴')는 직원이 40명 정도 되는 소규모회사이다. 이 회사의 주영 사장은 직원들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독서경영을 해보고 싶었다. '우리 같은 소기업에서도 이런 것이 될까' 하고 걱정을 하였는데 아나나 다를까 독서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주영 사장은 매달이 아니고, 분기에 한번씩 필독서 한권을 정해 읽기로 했다. 그런데 그것도 책을 꼭 읽어야 하는 건 아니다. 책은 건성으로 보아도 좋으니 책과 관련한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했다. 이게 필수다. 그래서 독서보다는 토론에 방점이 주어진다. 빌리브네이처의 독서경영은 '책을 매개체로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 되었다. 이런 과정을 계속 하다 보니 직원들이 어느 사이 책을 읽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다. 이 회사의 독서경영은 은연중에 개인의 역량을 넘어서 조직의 역량을 키우는 결과가 되었다.

### 조영호관장의 좌우지간~

“

책 안 읽는 당신, 정신이 가난하구만!

”

- 오광봉, 신문배달원, 오광봉 북가페 지킴이 -

“

오늘날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마을 도서관이었다.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다.

”

-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

## 배움으로 삶을 가꾸는 사람: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해봤어’ 학습법

2015년 10월 우리나라 대기업 홍보담당자들의 모임인 한국CCO클럽에서 한국 최고의 기업인 어록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했다. 1위가 정주영 회장의 ‘이봐 해봤어?’였고, 2위가 이진희 회장의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그리고 3위가 김우중 회장의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였다.

현대그룹의 창업자 정주영 회장은 행동지향적인 기업가였으며 온몸으로 삶을 사셨던 분이다. 현재 북한 땅인 강원도 통천군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사일을 하였으나 농촌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가출을 시도했다. 그것도 네 번이나 말이다. 부기도 배우고, 부두하역도 하고, 쌀가게 배달도 하다가 자동차 수리소를 인수하여 사업이란 걸 하게 되었다. 그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건설업에 뛰어들었고, 급기야 경부고속도로 건설에서 주역을 맡았다. 그리고는 국산차 개발에 도전했고, 조선업에 뛰어들었다. 조선소를 짓기 위해 부지로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울산의 미포만이 담겨있는 지도를 들고 영국 바클리즈 은행 측을 만났다. “조선 기술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순간적으로 지갑에서 500원권을 꺼내 뒷면에 그려져 있는 거북선을 보이면서 정회장은 “우리는 이미 영국보다 300년 전, 1500년대에 철갑선을 만들었던 기술이 있다.”고 주장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한 일화이다.

정주영 회장의 이런 특성 때문에 그를 무모하게 행동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는 답이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현장에서 부딪히고, 시도하면서,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하는 현장주의 학습자였다. 많이 해보고, 많이 부딪혀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문제가 있다.” “안 된다.”고 주장만하는 간부들에게 그는 늘 이야기했다. “이봐, 해봤어?” 해 본 자만이 진짜를 배울 수 있는 것이다.

## 배움으로 아름다움을 가꾸는 세상: 행동으로 부딪히면 배움이 오는가?

글자도 모르는 아이들도 휴대폰만 주면 자기들이 필요한 앱을 찾아서 재미있는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한다. 그런데 다른 면에선 유식한 어르신들 중에는 휴대폰의 새로운 기능을 아무리 가르쳐드려도 몇 번 해보고는 “안 된다” 하고 돌아서는 분이 많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아이들은 고정관념이 없이 이것저것 부딪히면서 해보는 데 비해, 어른들은 배운 것을 기억해서 그것만 좇아가다가 포기하고 마는 것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시행착오이며, 해보는 것이고 경험이다.

미국의 교육철학자 존 듀이(John Dewey: 1859-1952)는 학습은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행



## • 행동으로 부딪히면 배움이 오는가?

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함에 의한 학습’(learning by doing)을 주장한 것이다. 맞는 말이다. 진정한 학습은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하고, 온몸으로 느껴져야 한다. 그렇다고 행동만 하면 배움이 되는 것일까? 듀이는 단세포적인 행동은 학습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했다. 행동이 하나의 실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니 이렇게 되네.” “이렇게 바꿔 보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인과관계를 끝없이 탐문하고 또 통찰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주영 회장처럼 말이다.

### 조영호관장의 좌우지간~

“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나는 효과가 없는 10,000개의 방법을 발견한 것뿐이다.

”

- 토마스 에디슨, 발명가 -

“

교육은 삶을 위한 준비가 아니다. 교육은 삶 그 자체다.  
(Education is not for preparation for life; education is life itself.)

”

- 존 듀이, 미국의 교육철학자 -

## 배움으로 삶을 가꾸는 사람: 미얀마 소녀 핑자 씨가 한국어를 공부한 이유

미얀마의 고도이자 내륙의 중심 도시인 만달레이에서 태어난 카인 핑자(KHAIN TIN ZAR: 한국명 '진주') 씨는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했다. 그의 아버지가 앞으로는 한국이 중요한 나라가 될 것이고 한국어를 배워두면 쓸모가 많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는 대학을 마치고 한국어 관광가이드도 하고 대사관에서 통역도 했다. 그리고 한국 회사에 취직하여 일도 하였다. 그러다 '공부를 더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2017년 아주대학교에 진학하여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마쳤다. 그리고 나니 또 욕심이 생겨 박사과정에 진학했다. 이번에는 이화여자대학 경영학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핑자 씨는 한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첫째는 한국인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놀랐다. 둘째는 시스템적으로 치밀하게 일하는 것을 많이 배웠다. 그리고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생산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는 미얀마 걱정이 많다. 하루 빨리 나라가 안정되었으면 좋겠다. 미얀마에 돌아 가면 자신이 배운 것을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고 싶다. 가능하면 국제화된 학교를 설립하고 싶다.

## 배움으로 아름다움을 가꾸는 세상: 왜 프랑스인들은 한국어를 공부하나?

샤를로트는 K팝이 좋아서, 디나는 한국TV를 보고 한국인들의 친절에 감동하여, 그리고 한국 입양 아인 안-리즈는 뿌리를 알고 싶어 한국어를 공부한다고 했다. 파리에서 TGV로 두 시간쯤 대서양쪽에 위치한 낭트(Nantes)시의 낭트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수원시평생학습관 '글로벌 누구나학교'에 출연하여 왜 한국어를 배우는지 저마다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들은 조금씩 다른 이유를 이야기했지만, 경제적인 이유나 취업보다는 '좋아서' '우리와 많이 달라서' 배운다고 했다.

프랑스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일찍이 1956년부터이다. 하지만 그 때는 오로지 학문적 관심에서였다. 프랑스인들이 한국어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후반이다. 기존에 있던 파리와 리옹의 한국어 강좌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보르도, 르아브르, 엑상프로방스, 낭트 같은 지방에서도 한국어 강좌가 생기고, 나아가서는 한국어과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전체적으로 모집정원의 10배 정도 지원자가 몰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주대 불어불문학과 졸업생인 전현주교수는 2014년부터 낭트에서 프랑스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처음에는 미술학교에서 가르치다가 이제는 미술학교와 낭트대학교에서 동시에 가르



## • 왜 프랑스인들은 한국어를 공부하나?

친다. 2020년 9월에는 낭트대학교에 대학학위(DU: diplôme universitaire) 과정의 ‘한국언어문화에  
 술학과’를 만들었다. 2년제이고, 중북배속이 가능하여, 학부학생, 대학원 학생이 모두 들 수 있다. 1  
 기 학생이 36명인데 1명 빼고 다 여학생이다. 그리고 프랑스에 입양 온 한국인도 4명이 있다. ‘누구나  
 학교’에 출연한 7명의 프랑스 학생들은 코로나 때문에 밖에 대고 인사를 하는 프랑스인들에게는 ‘사  
 회적 거리두기’가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도 했다.



수원시평생학습관 ‘글로벌 누구나학교’에 출연하여 프랑스 낭트에서 원격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전현주교수와 함께 참여  
 한 프랑스 학생들(2021. 2. 24).

## 조영호관장의 좌우시간~

“

한국에서는 신기한 게 뭐를 표현하고 싶을 때, 한단어로 표현하는 게 많아요.  
 맛집같은 걸 프랑스에서는 한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는, 은, 이’ 같은 표현은 프랑스에 없기 때문에 어려워요.

”

- 오디, 프랑스인, 유튜브 BDOA채널 -

“

자연에 실재하는 온갖 변이가 바로 사물의 원형(原形)이며 변화의 원동력이다.  
 다양성은 이런 변이들의 자연스러운 공존이다. 변이에는 서열이 없다.

”

-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

## 배움으로 삶을 가꾸는 사람: 6남매 모두를 하버드·예일 졸업시킨 비결

첫째 딸 고경진: 하버드 졸, MIT 이학박사, 중앙대 교수; 둘째 아들 고경주: 예일대 의대졸, 하버드 부학장 거쳐 2009 오바마행정부 보건부 차관보; 셋째 아들 고동주: 하버드졸, 하버드와 MIT 공동 의학박사, 철학박사; 넷째 아들 고흥주: 하버드졸, 하버드 법학박사, 2009 미 국무부 법무 고문; 다섯째 딸 고경은: 하버드 법학박사, 예일대 석좌교수; 여섯째 아들 고정주: 하버드대 졸, 미술가.

이렇게 6남매 모두를 명문대에 진학시키고 훌륭하게 키워낸 어머니 전해성씨가 가정교육 이야기를 담은 책을 펴냈다. ‘엘리트보다는 사람이 되어라’(1996년 초판, 2009년 개정). 전해성 여사가 남다르게 자식들을 길러낸 비결은 무엇일까? 무슨 영재교육법이라도 있는 걸까?

우선 부모가 당당하게 그리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남편과 자신이 가난한 유학생이었고, 학업을 마치고 남편이 외교관으로 생활하였는데 항상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환경 탓을 하지 않으며 열심히 살았다. 전해성씨는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이었다. 많은 아이들을 기르면서도 박사학위를 두 개나 땀다.

그리고 전해성씨 부부는 아이들을 민주적으로 길렀다. 아침 식사는 반드시 가족이 함께했고, 정기적으로 가족회의를 열어 집안의 대소사를 아이들과 함께 의논하고 결정했다. 그리고 한 번 정한 원칙은 확실히 지켰다. 가족회의에선 아이들의 말을 경청했다. 아이들이 발언할 때 부모가 끼어들러치면 아이들은 ‘지금은 말씀하실 차례가 아닙니다’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었다. 그 집안에서는 자연 ‘공부하라’고 말할 수가 없었고 ‘공부하자’고 할 뿐이었다.

## 배움으로 아름다움을 가꾸는 세상: 유대인의 하브루타 교육법

하브루타(chavruta)는 유대인말로 우정, 동료를 의미하는데 실제로는 ‘짜음 지어 질문하고 대화, 토론, 논쟁하는’ 유대인 특유의 교육법을 말한다. 유대인들은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한다.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엄마는 태아에게 책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이가 좀 자라면 식사를 하면서 부모와 자녀가 질문하고 답변한다. 그리고 자녀가 잠들기 전에 어머니가 동화를 들려주면서 대화를 나눈다. 아이가 암기와 이해를 잘하기 위해 돌아다니면서 스스로 묻고 답하면서 증명거리는 것도 유대인 사회에서는 많이 볼 수 있다.

학교에서도 교사가 학생들에게 질문하면서 수업하고, 학생들끼리 짜음 지어 서로 가르치면서 토론



## • 유대인의 하브루타 교육법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학 도서관은 '정숙'할 수가 없다. 시끄럽고 분주하다. 이런 하브루타는 뇌를 활성화시키고 사람을 창의적으로 만든다. 그래서 유대인이 노벨상 수상자의 30%, 미국 아이비리그 학생의 23%, 세계 우수 대학 교수진의 30%, 매년 미국 기부의 45% 그리고 미국 억만장자의 40%를 차지하는 게 아닐까?

### 조영호관장의 좌우지간~

“

저는 엘리트가 되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철학은 확고합니다.  
덕이 재주를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덕망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고  
이를 자녀들에게 강조해 왔습니다.

”

- 전혜성, '엘리트보다는 사람이 되어라' 저자 -

“

질문으로 파고드는 사람은 이미  
그 문제의 해답을 반쯤 얻은 것과 같다.

”

- 프란시스 베이컨, 영국의 철학자, 정치인 -



## 배움으로 삶을 가꾸는 사람: 무명의 복싱선수에서 세계적인 건축가가 된 안도 타다오

가정 형편도 뒷받침 되지 않았고 공부에 취미를 갖지도 못했던 그는 재미로 복싱을 시작했다. 한달 만에 프로선수 자격을 따고 해외원정까지 다녀오며 세계챔피언의 꿈을 키웠다. 그러던 어느날 세계 챔피언 하라다 선수의 경기를 보고는 권투를 접었다. 하라다에 비하니 자신이 너무 부족했다.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하다 만드는 것에 취미가 있던 그는 공사장 일을 하며 건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마땅히 물어 볼 선배도 없고 하여 책으로 건축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건축학과 교과서를 사서 공부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던 어느날 한 책방에서 프랑스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의 책을 발견했다. 그는 그 책을 속에 있는 건축도면을 외울 정도로 보고 또 보았다.

그는 유럽의 건축을 직접 보고, 르 코르뷔지에를 만날 작정을 하고 가진 돈을 몽땅 털어 유럽으로 갔다. 꿈에 그리던 ‘사보아 주택’과 ‘롱상 성당’ 등을 보았으나 르 코르뷔지에는 만나지 못했다. 그가 파리에 도착하기 직전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그는 건축가가 되었으며 데뷔작 ‘스미요시 나가야 주택’을 선보인 이후, ‘빛의 교회’ ‘나오시마 섬 미술관’ 등 불후의 명작을 남긴다. 그의 이름이 ‘안도 타다오(安藤忠雄 1941-)’. 그는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1995년 수상)뿐만 아니라 다수의 권위 있는 상을 받았다.

그의 건축은 콘크리트가 그냥 노출되어 있어 알아보기 쉽다. 콘크리트 그 자체가 구조물이고 장식물이다. 인테리어가 따로 없다. 극도의 단순화를 추구한 반면, 강한 빛을 이용하고, 주변 공간간의 유기성을 강조한다. 그는 서양적인 기하학과 동양적인 관계성을 잘 조화시킨 건축가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오크밸리에 있는 뮤지엄 산, 제주도 피닉스아일랜드에 있는 유민박물관, 역시 제주도 본태박물관, 서울에 있는 JCC 크리에이티브센터 등 그의 작품이 다수 있다.

## 조영호관장의 좌우지간~

“ 건축의 목적은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여  
그들을 모이도록  
하는 것이다. ”

- 안도 타다오, 건축가 -

“ 집은 인간이  
살기 위한 기계이다  
(A house is a machine  
for living in) ”

- 르 코르뷔지에, 스위스 태생 프랑스 건축가 -

“ 한권의 책이  
인생을 바꾼다. ”

- 조영호, 수원시평생학습관 관장 -



## 배움으로 삶을 바꾸는 사람: 안식년을 즐기는 사장들

영어와 글로벌 역량 교육을 하는 '캐럿 글로벌'의 노상충 대표는 1년에 두 번 Think Week(생각 주간)을 갖는다. 1월과 8월 1주 내지 열흘간 특별한 여행을 떠나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오는 것이다. 2018년 1월, 그는 탁넛한 스님이 프랑스 보르도에서 운영하는 플럼 빌리지(plum village: 자두마을)에 다녀왔다. 2020년 싱크위크로 CES와 실리콘밸리로 잡았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가전박람회 CES를 둘러보고 그리고 실리콘 밸리에 있는 여러 회사를 방문하였다. 그는 애플, 페이스북, 테슬라 등을 방문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 했다. 세계 첨단의 회사 사람들은 역시 엄청난 긴장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한미글로벌의 김종훈 회장은 1주가 아니라 두 달을 쉬었다. 그는 건축을 전공하고 건설회사에 취직하여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다. 그는 세계 최고층 쌍둥이 빌딩이라고 하는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타워를 건설하는 데도 참여했다. 그러다 본격적으로 건설경영(CM: construction management)을 한국에 도입하기 위해 미국 파슨스와 합작으로 1997년 한미파슨스를 설립하여 독립하였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회의가 들었다. 일에 매몰된 삶 속에서 '나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안식년을 가기로 결심했다. 회사에 제도를 마련하고 2달을 쉬었다. 1개월은 설악산에서 살았고 1개월은 인도 여행을 했다.

사장이 회사 일에만 몰입한다고 좋은 경영을 할 수 있을까? 일상에 벗어나면 새로운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현명한 리더는 잘 알고 있다.

## 조영호관장의 좌우시간~

“

가정과 회사,  
삶과 일의 균형을 잡는 게  
핵심입니다.  
일에 너무 매몰되면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지 않아요.

”

- 김종훈 회장, 한미글로벌 -

“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1년의 안식년을 드립니다.

”

- 딱 1년만 쉬겠습니다. 브라이언 리아, 책박상, 2019 -

## 배움으로 삶을 바꾸는 사람: 나이팅게일이 통계학자가 되기까지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 간호사의 상징인 나이팅게일은 간호사에 대해 우리가 갖는 고정관념과는 달리 시대를 거스르는 독한 의지의 인물이었다. 그녀는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여성’으로 살기를 거부했다. 그가 산 19세기는 남성중심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여성은 결혼하여 현모양처로서 가정을 꾸리고 남편을 보필하는 것이 이상이었다. 나이팅게일은 가족의 압력, 사회의 요구에 당당히 맞서면서 끝내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을 유지하며 자신의 일을 해나갔다.

나이팅게일은 또한 영국 명문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으나 ‘귀족’으로 살기를 거부했다. 그녀가 “아프고 병든 사람을 돌보는 간호사가 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의 부모들은 격렬히 반대했다. 귀족들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선 사업’을 통해 하는 것이지 직접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당시 간호사는 비천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난한 집안 처녀들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직업이었던 것이다.

나이팅게일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 전문교육을 받고 싶었다. 그러나 당시 그런 교육을 해 주는 데가 마땅히 없었다. 하는 수 없이 혼자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 의학, 보건, 병원관련 서적과 자료를 닦치는 대로 읽고 공부했다. 이렇게 한 3년 하고 나니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실력자가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실습이었다. 수소문 끝에 그는 독일 카이저스베르트 교회에서 운영하는 봉사기관에서 3개월간 간호 훈련을 받았다.

1853년 소련과 연합국(오스만, 영국, 프랑스)의 전쟁인 크림전쟁이 발발했을 때, 나이팅게일은 38명의 간호원정단을 이끌고 크림반도에 있는 스쿠타리 영국군 병원으로 향했다. 현지사정은 처참했다. 지하에 하수처리가 안 되고, 병실 바로 옆에는 쓰레기들이 쌓여있어 악취가 온종일 풍겨 나왔으며, 쥐, 파리, 지네, 구더기 따위가 창궐했다. 의약품, 침구, 의복, 세면도구, 연료 등을 찾아보기도 힘들었다. 간호사 나이팅게일은 결코 환자 곁에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그녀가 병원경영 책임자가 되어 이 상황을 개선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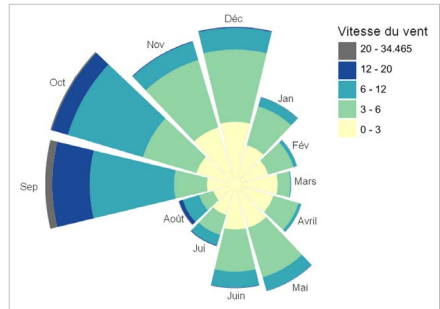
그녀는 숫자를 통해 분석을 하고 그래프로 고위직을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전쟁 중 사망한 군인들의 87%가 실상 전쟁과 상관없이 후방에서 불결한 환경으로 인해 ‘감염’으로 사망한 것을 알아냈다. 군에서 감염 환자의 비율은 일반 주민의 2배에 이르기도 했던 것이다.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녀는 영국 왕실을 움직여야 했고, 영국 사회를 변화시켜야 했다. 그녀는 어렸을 때 배운 수학실력을 발휘해서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고, 도표를 만들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데이터를 잘 다룬 공로로 영국 왕립통계학회 최초 여성회원이 되었으며 통계학자로서도 인정받게 되었다.



등불을 든 숙녀(The lady with the lamp)로 불리었던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월별 환자수 증감을 원인별로 보여주기 위해 나이팅게일이 개발한 장미도표(Rose diagram).

- 출처: commons.wikimedia.org

## 조영호관장의 좌우지간~

“

나이팅게일의 아버지는 딸에게 매일 신문을 읽도록 했다. 그녀는 여러나라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줄도 안다. 그런데 제일 강점은 수학이었다. 숫자와 통계를 다루는 데는 전문가 수준이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추론하는데 분석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

”

- 타임스에 실린 기사, 펜의 힘 팀코티스 저, 부산대 출판부, 2018, 9쪽 -

“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가라. 그러면 세상이 너를 반겨줄 것이다.

”

-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간호사, 통계학자 -



## 배움으로 삶을 가꾸는 사람: 다산과 추사는 유배지에서 무엇을 했나?

정조대왕의 총애를 받던 다산 정약용은 정조가 서거한 다음해(1801년)에 전남 강진으로 유배를 갔다. 그는 거기에서 18년간 가족과 떨어져 갇힌 생활을 했다. 그러나 그는 이 긴 시간 동안 좌절하거나 학문에서 손을 떼지는커녕 오히려 왕성한 학문적 열의를 불태웠다. 그는 제자를 기르고, 시를 쓰며, 학문의 깊이를 더해갔다.

다산은 18년의 유배기간 동안 춘추고징(春秋考徵), 경세유표(經世遺表), 목민심서(牧民心書), 흙흙신서(欽欽新書) 등 주옥같은 저서 500여 편을 남겼다. 그는 복사빠에 세 번 구멍이 날 정도로 정좌하고 학문에 몰두하였다고 했다. 다산의 유배기간은 학문을 꽃피운 시기라 할 수 있다.

다산보다 24살 어린 추사 김정희는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었으나 경주 김 씨인 자신의 가계와 안동 김 씨 사이에 생긴 권력 투쟁에서 희생이 되어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 추사는 8년 동안 제주도 유배생활을 하면서 그 역시 글과 그림을 갈고 닦아 금석학을 정립하고, 추사체로 알려진 독특한 서체를 완성하였다. 불후의 명작 세한도를 완성한 것도 유배지에서였다.

역사의 아이러니라 할까? 전화위복이라 할까? 역경을 오히려 발전의 계기로 삼았던 다산과 추사는 우리 모두의 스승이 아닐 수 없다.

## 조영호관장의 좌우지간~

“ 천하에는 두 가지 큰 저울이 있다. 하나는 시비(是非) 즉 옳고 그름의 저울이고, 하나는 이해(利害) 곧 이로움과 해로움의 저울이다. 이 두 가지 큰 저울에서 네 가지 큰 등급이 생겨난다. 옳은 것을 지켜 이로움을 얻는 것이 가장 으뜸이다. 그 다음은 옳은 것을 지키다가 해로움을 입는 것이다. 그 다음은 그릇됨을 따라가서 이로움을 얻는 것이다. 가장 낮은 것은 그릇됨을 따라다가 해로움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

- 다산 정약용 -

“ 변치 않을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지, 고작 땅 주인 되는 데 인생을 걸어서야 되겠는가? ”

- 다산 정약용 -

“ 가슴속에 1만 권의 책이 들어 있어야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림과 글씨가 된다. ”

- 추사 김정희 -



## 배움으로 삶을 가꾸는 사람: 교실화폐를 아시나요?

미국의 경영대학원(비즈니스 스쿨)에서는 수강신청을 경매로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가령 펜실베니아대학의 와튼 스쿨에서는 일단 MBA(경영학 석사) 입학생들에게 5000달러라는 가상화폐를 주고 졸업 때까지 이 돈으로 수강신청을 하게 한다. 꼭 듣고 싶은 저명교수 강의를 들으려면 입찰에서 많은 금액을 써야 한다. 그래서 인기 있는 강의 몇 과목을 듣다 보면 가진 돈이 줄어 들어 다른 과목 신청하는데 애로가 생긴다. 가격이 비싸지 않은 과목도 적절히 섞어서 듣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방식은 경영학도에게 시장경제 원리를 생활에서 학습하도록 하는데 효과가 크다. 그뿐만 아니라 교수평가를 위해서도 매우 유용하다. 낙찰가와 수강자 수를 곱하면 그 교수의 시장가가 되는 것이다. 낙찰가가 높은 교수는 수강생을 적게 받아도 되지만, 낙찰가가 낮은 교수는 학생 수를 많이 받아야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

부산 송수초등학교 6학년 1반 담임선생님인 옥효진 선생님은 반학생들과 함께 학교에서 '미소'라는 단위의 교실화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생들은 모두 한 가지 직업을 갖고 그 일을 하면서 미소로 월급을 받는다. 칠판청소부, 교실청소부, 급식도우미, 은행원, 투자회사 직원, 신용평가위원, 통계청, 국제청 등 직업도 다양하다. 이 중에서 월급이 가장 많은 건 급식도우미다. 급식도우미의 근무시간이 가장 길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받은 월급으로 교실 내 상인으로부터 과자도 사먹고, 일기면제권도 사고, 자리구매도 하고 또 저축해서 투자도 한다. 투자의 지표는 선생님 몸무게다. 선생님 몸무게가 0.1kg 오르면 수익률이 1% 오른다. 물론 몸무게가 떨어지면 그 반대다. 월급을 받으면 근로소득세를 낸다. 이렇게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돈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경제 메커니즘을 터득한다. '세금 내는 아이들'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인기를 끌고도 있다.

## 조영호관장의 좌우지간~

“ 실제 사회에서는 연습할 기회도 없이 실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1년을 통해서 연습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전에서는 1년 동안 했던 활동들을 떠올리면서 추억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경험이 됐으면 좋겠어요. ”

- 옥효진, 부산송수초등학교 교사 -

“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는 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이다. ”

-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

가난한 아빠는 돈을 위해 일하고, 부자 아빠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한다. ”

-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 -



## vol. 26 한국 엄마, 미국 엄마

### 배움으로 삶을 가꾸는 사람: 한국 엄마, 미국 엄마

EBS에서 2012년 4월 3일 방영한 다큐프라임 마더쇼크에서는 한국 엄마와 미국 엄마 각각 1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나온다. 초등학생 엄마들인 이들은 아이들의 단어 맞추기 작업을 지켜본다. 미국 아이들에게는 영어 알파벳을, 한국 아이들에게는 한국어 철자를 섞어 놓고, 이를 바로 잡아서 단어를 만드는 것이다. 가령, ‘용청차열’을 보고 ‘청용열차’라는 단어를 찾는 것이다.

지켜보고 있는 엄마들은 아이들의 어휘력 테스트인 줄 알고 초조하다. 특히 초조한 모습을 보인 사람들은 한국 엄마들이다. 그들은 참다못해 답을 거의 가르쳐 준다. 엄마는 지켜만 보라고 했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미국 엄마들은 한국 엄마와 대조적이다. 그들은 대부분 끝까지 지켜본다. 아이들이 정 어려워 할 때, 간접적인 힌트만 줄 뿐이다. 아이들이 답을 에원할 때도 미국 엄마들은 “엄마는 답을 줄 수가 없어.”라고 이야기할 뿐이다.

EBS 영상에 나온 중학생 준호 엄마는 준호가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준호의 가방을 뒤진다. 가정통신문이 있나 보기 위해서다. 준호가 알아서 내어 놓지 않으니 엄마가 챙긴다고 한다. 한국 엄마 중에는 이렇게 아이들 일을 직접 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아침에 학교 갈 때도 옷을 입혀주고 가방을 다 싸 주고, 아이는 밥만 먹고 나갈 수 있게 해 주는 엄마도 있다. 이래도 되는 것일까?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량은 ‘자기주도성’이라고 한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이 자기주도성은 미래의 역량이 아니라 사실 과거에도 현재도 가장 중요한 역량이다. 그런데 미래는 더 중요해진다는 뜻일 것이다. 그럼 우리 아이들의 자기주도성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들에게 결정권을 주어야 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어야 한다. 부모가 할 일은 곁에서 격려하는 것이다. 영상에서 본 미국 엄마들처럼 말이다.

한국 엄마 중에 현명한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다.

### 조영호관장의 좌우지간~

“

보모 역할은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

- 존 가트먼, 미국 와싱턴대학 심리학과 명예교수 -

“

자기주도적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삶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하는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지, 결코 우리를 둘러싼 여건들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감정보다 가치를 우위에 놓을 수 있다.

”

- 스티븐 코비,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저자 -



## 배움으로 삶을 가꾸는 사람들: 덴마크식으로 살아보실래요?

영국에서 저명한 여성잡지 '마리끌레르'에서 편집장까지 했던 헬렌 러셀은 뜻밖에 영국을 떠나 덴마크에서 삶을 꾸리게 되었다. 남편이 레고 회사에서 일을 찾았기 때문이다. 평소엔 덴마크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나 애정이 없었으나 일이 이렇게 되다보니 덴마크에 대해 철저히 파헤쳐보기로 했다.

유엔에서 발표하는 행복도조사에서 덴마크가 과거 40년 동안 가장 행복도가 높은 나라로 선정된 이유가 무엇인가? 헬렌 러셀은 덴마크에서의 생활을 월별로 기록하여 책으로 펴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덴마크 사람들: 그들과 함께 살아본 일년'(2016, 마로니에북스).

같은 유럽 사람이지만 영국인이 본 덴마크사람들은 놀라운 점이 많았다. 덴마크인들은 철저하게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했다. 아니, 일을 적게 하고 가족과 또는 개인적인 생활을 즐겼다. 평소에도 오후 5시면 퇴근했고, 금요일은 오후 4시까지만 일했다. 1주에 일하는 시간이 34시간에 불과했다. 영국은 42.7시간, 한국은 47.7시간인데 말이다. 그럼 그들은 퇴근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물론 가족과도 시간을 보내지만, 주민들끼리 클럽활동을 많이 했다. 덴마크인의 90%는 2.8개의 클럽(동호회)에 가입하여 스포츠나 취미활동을 즐기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을 제공한다.

덴마크인들은 철저하게 평등주의라서, 남녀차별, 사회적 직위에 따른 차별이 없다. 빈부격차도 유럽에서 가장 낮다. 덴마크사람들은 또한 휴게(Hygge)라는 말을 좋아한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또는 혼자자 보내는 소박하고 여유로운 시간, 일상 속의 소소한 즐거움이나 안락한 환경에서 오는 행복을 뜻하는 말이다. 이런 여유 속에서도 덴마크인의 인당 노동생산성은 세계 5위이고, 우리나라 보다 2배나 높다. 1인당 GDP가 67,000달러로서 세계 상위권(7위)이고, 이 또한 우리나라의 2배에 해당한다.

영국에서 불임치료까지 받으며 노력했으나 별성과를 보지 못했던 헬렌 러셀은 1년 덴마크식으로 살면서 아이를 얻었다.

## 조영호관장의 좌우시간~

“ 신되는 덴마크 사람들이  
그토록 행복한 첫 번째 조건이다.  
믿으려고 노력하라.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고  
불필요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 ”

- 헬렌 러셀, '행복한 덴마크 사람들' 저자 -

“ ▶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 당신이 다른 사람들만큼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

- '안테의 법칙' 중에서 -



## 배움으로 삶을 바꾸는 사람들: 20대 성격이 70이후의 운명을 결정한다면...

미국에서 전염병연구를 하던 데이비드 스노든(David Snowden) 교수는 수녀님들을 설득하여 건강과 노화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수녀님들은 비교적 통제된 환경 속에서 삶을 꾸려가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연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스노든 교수는 1986년부터 75세 이상 되는 수녀님들 678명에 대해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했다. 그 분들과 함께 살면서 인터뷰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분들 삶에 대한 과거 자료들을 모조리 조사했다. 심지어는 사후에 뇌를 기증 받아 뇌 조직의 해부까지 했던 것이다. 그 연구 결과는 '우아한 노년(Aging with grace)'이라는 제목으로 2001년(번역본은 2003년) 책으로 발표되었다.

비슷한 환경 속에 산 수녀님들이지만, 노후 생활은 많이 달랐다. 일찍이 건강을 잃은 분들도 있었고, 알츠하이머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100세가 넘을 때까지 건강을 누린 분들도 계셨다. 유전자의 영향도 있었고, 학력의 영향도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녀학교를 마치고 20대 초에 쓴 자기소개서에서 중요한 점이 발견되었다.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한 수녀님들은 노후에 건강을 유지할 확률이 높았다.

긍정적인 성격이 우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열쇠라는 이야기다.

## 조영호관장의 좌우지간~

“

긍정적 정서는  
우리의 지적·신체적·사회적  
자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형성하여 위기에 처할 때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활용하게 한다.

”

- 마틴 셀리그만, 긍정심리학자 -

“

100세를 살아보니  
65세에서 75세 때가  
가장 황금기인 것 같아요.  
그 때어야 어떻게 살아야 할지,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

-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



## 배움으로 삶을 가꾸는 사람들: 그라민은행이 여자들에게만 돈을 빌려주는 이유

대학 강단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던 방글라데시의 무하마드 유누스 교수는 깊은 회의에 빠졌다. 교과서에 있는 경제학 이론은 아름답지만, 가난으로 고통 받고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비참했다. 그는 학생들과 조사를 했더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큰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랐다. 그래서 그는 1976년 은행을 설립하여 150달러의 소액을 대출해주는 ‘그라민 은행’을 실험적으로 열었고, 1983년에는 그라민 은행을 정식으로 독립된 은행으로 만들었다.

그라민 은행은 모든 면에서 기존의 은행과 달랐다. 담보를 요구하지 않고, 대출서류도 개인이 작성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남자가 아닌 여자에게 대출을 해 준다. 그리고 5명으로 조를 만들어 와야 한다. 또 그라민 은행과 거래를 하고 회원이 되려면, 교육을 받고, 시험을 쳐야 한다. 그 안에는 ‘우리들의 결집 16가지’도 있다. 결집 16가지에는 ‘자녀를 교육시키고, 교육비를 충당한다’ ‘화장실을 만들어 사용한다’ ‘결혼 지참금을 받지도 주지도 않는다’는 것도 있다.

그라민 은행이 왜 여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가? 남자들에게 돈이 들어가면 가족보다는 개인적인데 돈을 쓰는 경향이 있는데, 여자들은 우선 가족을 생각하고, 생계를 우선한다는 것이다. 가난 탈출과 사회변화를 위해서는 여자의 손길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라민 은행은 돈 거래를 하는 은행이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교육기관이다.

## 조영호관장의 좌우지간~

“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적선이 아니라  
평등한 기회입니다.

”

- 무하마드 유누스, 그라민 은행 설립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 -

“

롤모델이 왜 필요해요?  
나는 나같이 살면 된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지혜가 생기고,  
실수가 잦아들지만,  
여전히 처음 살아보는 오늘이니  
완벽하지 않아도 그럴 수 있다.

”

- 윤여정, 배우,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자 -



# vol. 30 기계의 고장도 줄여주는 “감사합니다”

## 배움으로 삶을 가꾸는 사람들: 기계의 고장도 줄여주는 “감사합니다”

양과 두 개를 각각 컵에 담고 한 컵에는 “미워~”라고 써 붙이고 다른 컵에는 “고맙습니다”라고 써 붙였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 하루 두 차례 하나씩 따로 가지고 가서 한 쪽에는 “미워~” “짜증나!” 등 나쁜 이야기를 해 주고, 다른 쪽에는 “고마워.” “사랑해” 등 좋은 이야기를 2분씩 해 주었다. 물이나 햇볕 등 다른 조건은 동일하게 했다.

“고맙습니다” 양과는 16일 만에 싹이 터서 예쁘게 자랐는데 “미워~” 양과는 26일 후에 움이 트기 시작했다. 고구마 실험에서는 이 편차가 더 벌어졌다. 이런 실험은 방송에서도 여러 번 했었고, 누구나 시도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포스코 포항공장에서는 기계설비에 “감사합니다” 스티커를 붙여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계의 고장률이 현저히 떨어졌다. 2010년 0.23%이던 고장률은 2년 후 0.12%로 52% 감소했으며, 갑작스런 고장으로 직원을 호출하는 돌발호출 건수도 2010년 899건에서 2년 후 320건으로 64% 줄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어떤 분은 에너지로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양자역학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아직 정확히는 알 수 없다. 그런데 “감사합니다”를 자주 이야기하면 말하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그래서 주변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확실하다. 긍정심리학에서 밝히고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포스코 ICT, 제이미크론, 천지세무법인 등에서는 감사운동을 전사적으로 전개하여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성과를 높이는데 크게 도움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군과 교도소에서도 감사운동의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 조영호관장의 좌우지간~

“ 아침에 일어날 때나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언제든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을 찾아  
기록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

- 오프라 윈프리,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위대한 인생'의 저자 -

“ 감사하는 사람은 훨씬 살아있고,  
경각심을 가지며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며,  
다른 사람들과  
맞닿아 있다고 느낀다. ”

- 로버트 에몬스, 긍정심리학자 -



## 배움으로 삶을 가꾸는 사람들: 손씻기를 주장하다 미친 사람 취급받은 사람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좋아지고 있는 게 있다. 감기환자와 식중독 발생 건수가 현저히 줄었다. 우리아이들병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감기 환자(호흡기 바이러스)는 2020년, 전년도에 비해 75.9%나 줄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의하면, 식중독 발생건수는 2020년, 과거 5년 평균에 비해 52%나 줄었다. 손씻기, 마스크 쓰기, 개인용 용기 쓰기 등 새로운 습관이 국민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식약처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손씻기는 77.0%에서 94.2%로, 음식 덜어먹기는 57.1%에서 91.8%로, 개인용기 사용하기는 52.1%에서 90.7%로 그 실천 비율이 높아졌다. 그 중에서도 손씻기는 국민 위생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습관이다. 손씻기는 언제 시작된 것일까?

손씻기는 1840년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시작되었다. 헝가리 출신 의사인 이그나스 켈멜바이스(Ignaz Semmelweis)의 공로가 크다. 그는 비엔나종합병원 산부인과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산부인과의 두 병동에서 산욕열로 인한 사망률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았다. 의대생들이 주로 일을 하는 병동에서는 10%가 되었는데 조산원들이 일하는 병동에서는 4%였다. 켈멜바이스는 의대생들이 여러 환자를 돌보다가 병체를 옮기는 것이 아닌가 추측했다. 그래서 손씻기를 실시해 보았더니 의대생 병동에서도 산욕열 사망률이 낮아졌다.

그러나 프랑스 파스티르에 의해 세균 이론이 정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켈멜바이스는 손씻기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었다. 손씻기 주장은 의사들을 모욕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켈멜바이스는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급기야 그는 정신병자로 취급받아 정신병동에 갇히게 되었고 그곳에서 간수들에게 구타를 당해 47세의 나이에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 조영호관장의 좌우지간~

“ 우리 손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약 150종 이상, 460만개 정도가 존재한다고 한다. 내 몸 입장에서서는 싸워야할 보이지 않는 큰 적인 셈이다. 몸속에 병원균이나 바이러스를 옮기는 위험한 습관은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것이다. ”

- 식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자료 -

“ 관찰이라고 하는 영역은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를 준다. ”

- 루이 파스티르, 프랑스 미생물학자 -



# 수감자에 연간 2,300만원이나 써야 하나?

## 배움으로 삶을 가꾸는 사람들: 수감자에 연간 2,300만원이나 써야 하나?

미국 뉴욕에서 교도소 수감자에 들어가는 비용이 일년에 5억원이나 된다는 보도가 있었다(한국경제, 2021. 3. 14.). 우리나라도 이 정도는 안 되어도 수감자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발표에 의하면, 전국 5만5천명 수감자에 들어가는 비용이 인당 연간 2,300만 원 정도이다. 교도소의 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또 교도소에서도 고령화가 일어나 비용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고 한다.

일반 근로자의 연봉에 해당하는 2,300만원. 이 돈을 죄 짓고 교도소에서 '놀고먹는' 사람들에게 써야 한다 말인가. 국민들 중에는 여기에 분노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노르웨이에서는 한 술 더 떠, 감옥이 무슨 리조트 수준이라한다. 노르웨이 바스토이섬은 섬 전체가 교도소인데 죄수들은 최상급 숙이 아닌 방갈로식 숙소에서 살고 있고, TV를 자유로 보고, 사우나는 물론 영화와 테니스도 즐길 수 있다. 일광욕을 즐길 수 있음은 물론이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감옥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과거 감옥은 죄지는 사람을 벌주는 곳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벌주는 것보다 교육시키고, 사회에 재적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름도 그래서 과거에는 '형무소'라고 했는데 지금은 교도소(矯導所)라고 하지 않는가(1961년부터 개칭). 바로잡을 교(矯)자와 인도할 도(導)자 이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정신교육도 시키고 직업훈련도 시킨다. 직업훈련 전용 교도소도 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

출소자에 대한 사회의 시선은 매우 차갑다. 그들을 사회가 안아주지 않으면 그들은 다시 범법자가 된다. 범법자가 가장일 경우 그 가족은 어떻게 되겠는가? 악순환은 이어진다. 유럽 전체의 재범률이 70% 정도인데 노르웨이 바스토스 섬 출소자의 재범률은 16%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다. 우리나라 출소자의 재범률은 30% 정도인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손길을 받은 사람들의 재범률은 1%가 안 된다. 사회가 범법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보인다.

## 조영호관장의 좌우지간~

“ 감옥은 자신을 알고 깨우치기에, 자신의 마음과 감정의 흐름을 냉철하게 규칙적으로 살펴보기에 이상적인 곳ियो. ”

- 벨스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27년 감옥생활 -

“ 검은 구름이 걷힌 뒤에는 태양이 더 찬란히 빛난다. ”

- 신용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홈페이지 인사말) -



## 배움과 삶에 얽힌 이야기: 타살률이 높은 나라, 자살률이 높은 나라

어느 대학에서 해외 현지 연구를 위해 방학 중에 중남미로 학생들을 파견하려 했는데 학부모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곳은 치안이 안 되는 나라라서 위험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옳은 지적이다. 남미에서는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 통계에 의하면, 전세계 살인 사건의 30% 정도가 중남미에서 일어난다고 한다. 중남미 국가의 평균 살인율(타살률)은 21.5명(인구 10만 명당)에 이른다. 전 세계 살인율 평균이 7명 정도인데 이의 3배에 이른다.

중남미에 비해 우리나라는 매우 안전한 나라이다. 2019년도 살인율이 0.6명이다. 1명도 안된다. 2019년 한 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줄곧 이 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살률 통계는 이와 정반대라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25명(인구 10만명당) 정도에 이른다. 중남미의 자살률은, 비교적 자살률이 높은 큰 나라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3국 평균을 구해 보면 6.8명이다. OECD 국가 평균인 11.5명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인 우리나라가 타살률이 높은 중남미를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 그럼 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높을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큰 몫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가 자살 원인이라면 중남미의 자살률은 우리의 두 배 이상이어야 한다. 그것보다는 사회적인 연대가 더 큰 문제가 아닐까? '관계망의 파괴' 심각하게 생각해 볼 점이다.

## 조영호관장의 좌우지간~

“

자살은 개인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사실(social fact)이다.  
자살은 기존의 사회적 규범을  
파괴하는 것이고 사회적인 일탈이다.

”

- 에밀 뒤르켐, 프랑스 사회학자 -

“

또 실패했는가? 괜찮다.  
다시 실행하라.  
그리고 더 나은 실패를 하라.  
(Ever tried. Ever failed. No matter.  
Try again.  
Fail again, Fail better.)

”

- 사무엘 베케트, 프랑스 소설가, 극작가(아일랜드 출생) -

## 배움과 삶에 얽힌 이야기: 〈시니어 패션반란〉 패션이 인생을 바꾸나?

패션모델 하면 오래 젊고 늘씬한 20대를 생각한다. 그런데 20대가 패션계를 장악한 건 1960년대다. 파리의 오프 쿠튀르(고급의상)의 명문가에서는 중년 여성을 모델로 기용했었다. 왜냐하면, 돈 많은 중년여성이 고객층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1960년대 학생운동과 함께 패션계에도 젊음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실제로 젊은이들이 소비를 주도하기도 했다. 그들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으로 구매력을 갖추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세상은 돌고 도는 법. 이제 패션계도 중년이 모델로 등장하고 있다. 전업주부였던 분이 모델로 변신하는가 하면, 60대가 모델학교를 다닌다. 그들은 배도 나오고 얼굴에 주름살을 감출 수 없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내보이는 것이다. 시니어들의 변신이고 반란이다. 이들은 나이든 자신을 당당하게 인정하고, 그 상태에서 자신을 꾸미고, 연출하고, 또 철학을 표출한다.

수원시 글로벌평생학습관  
Suwon Global Learning Center

### Learning letter

시니어 패션반란

아이리스 아펠(Aris Apfel, 1921~ )




- 출처: [youtu.be/m7GoE7K16sU](https://youtu.be/m7GoE7K16sU)



시니어들의 이런 욕구를 파악하여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있다. 명동과 압구정동에서 고급 부티크를 운영하던 구해주씨는 나이 들어가는 단골고객들의 욕구변화를 간파하고 시니어모델교실을 열었다. 2006년부터 회원을 모집하고 이듬해부터는 시니어 패션쇼를 열고 있다. 회원은 60대가 가장 많고, 90대도 있다. 그들 중 전문 모델이 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자신의 라이프를 위해 공부하고 활동한다.

미국 뉴욕의 아이리스 아펠(Aris Apfel)은 시니어모델의 아이콘이다. 1921년 8월 29일생인 그는 97세인 2019년 세계적인 에이전트 IMG과 전속모델 계약을 할 정도로 여전히 현역이다. 화려한 의상과 악세서리 속에 인생의 애환을 온통 담고 있는 아이리스 아펠의 얼굴 주름은 ‘나이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는다.

## 조영호관장의 좌우지간~

“

변화하는 신체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지나치게 넉넉한 실루엣의 옷을 입는 일도 피해야 한다. 노년의 몸을 ‘못나고 늘어진 어떤 상태’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패션의 매혹은 감춤이 아닌, 여전히 아름다운 신체의 부분으로 타인의 시선을 모으는 데서 나온다.  
항상 피팅이 된 옷을 골라야 한다.

”

- 김홍기, 패션큐레이터 -

“

당신이 다른 사람과 같이  
옷을 입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처럼 생각할 필요도 없다.

”

- 아이리스 아펠, 미국 뉴욕 인테리어 전문가, 패션모델 -

“

지금 당장 옷장에서 오래된  
옷들을 버리고,  
가장 단순한 선과  
중성색(화이트, 블랙, 베이지)으로 된  
기본 품목으로만 채운다.

”

- 김홍기, 패션큐레이터 -



## vol. 35 IQ를 높이는 확실한 방법

### 배움과 삶에 얽힌 이야기: IQ를 높이는 확실한 방법

인간의 지능은 상당부분 타고 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은 50% 정도, 나머지 50%는 성장 배경이나 개인의 노력에 의해 변화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IQ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가 있을까?

미국 미시간 대학의 리처드 니스벳(Richard Nisbett) 교수는 그 동안의 연구를 종합하여 아동들과 어른들의 IQ를 높이는 확실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인텔리전스, 김영사, 2010). 첫째는 운동이다. 운동은 아이를 가진 예비 엄마부터 해야 한다. 엄마의 운동은 뱃속의 아이를 건강하게 만들고 아이의 뇌를 발달시킨다. 어른들도 하루 30분 이상 운동을 하면 문제해결 능력이 증진된다. 심지어는 60세에 운동을 시작하더라도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을 반으로 줄인다.

둘째는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고, 질문을 많이 하여 생각을 하게 만들면 아이들의 IQ는 현저히 좋아진다. 대신 아이들에게 복종을 강조하고, 착하게 행동하는 법만 가르치면 아이들의 지능은 발달을 멈춘다. 따라서 게임도 예측을 하게하고, 분석을 요구하는 것은 아이들의 지능을 높여준다. 그래서 게임을 무조건 금기시하면 안 된다.

셋째는 칭찬을 잘못하면 아이의 지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머리가 좋거나 능력이 있다는 칭찬이 아니라, 노력을 많이 한다거나 실패를 이겨내는 자세에 대해 칭찬을 해야 한다. 변화할 수 있는 노력이나 과정에 대해 칭찬을 하라는 이야기다. 자신의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능력이 바뀔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애들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인간의 지능이 늙어서도 향상될 수 있다고 믿으면, 그 믿음이 실제로 지능을 변화시킨다.

### 조영호관장의 좌우지간~

“ 지능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다. 내 아이큐가 몇인지 모르겠다.  
자기 아이큐를 뽐내는 이들은 모두 루저들이다. ”

- 스티븐 호킹, 영국 이론물리학자 -

“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똑똑하거나 재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에 매달리고, 자신이 무능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어려운 일, 새로운 일을  
꺼려하는 반면에,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무엇인가를 익히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캐럴 드웁, 미국 스탠포드대학 교수, 심리학 -



## 배움과 삶에 얽힌 이야기: 마의 벽은 어떻게 깨지나

스포츠 기록경기에서는 기록이 계속 갱신되고 있다. 그러다가 도저히 이 기록은 깰 수가 없다고 하는 한 지점이 나타난다. 육상에서 1마일 달리기가 그랬다. 1마일은 1.6Km로서 400m 트랙을 네 바퀴 도는 거리이다. 기록은 4분 01초 03까지 내려갔으나 수많은 사람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4분을 돌파할 수가 없었다. 4분이 인간의 한계라고 느껴졌다. 그래서 ‘마의 벽 4분’이 된 것이다. "만약 1마일을 4분 안에 뛰다면 인간의 심장이 견디지 못하고 파열할 것이다."라고 생각들 했다.

그런데 1954년 5월 6일 이 ‘마의 벽’이 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25세 옥스퍼드 의대생인 로저 배니스터(Roger Bannister)가 이 기록을 깨버린 것이다. 3분 59초 04가 그의 기록이었다. 이런 일이 있는 후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1945년 이후 9년 동안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던 4분 돌파가 봇물처럼 쏟아졌다. 배니스터가 4분벽을 깬 그 해(1954년)에 37명이, 그리고 그 후 2년 동안 무려 300명이 넘는 선수가 4분벽을 거뜰히 넘어섰다. 기록은 1999년 3분 43초 13까지 내려갔다.

누군가 한 사람이 깨면, 다른 사람도 깰 수 있는 것이다. 신경과의사로 봉직하고 지난 2018년 세상을 떠난 배니스터경은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 “당신이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말하면 그것도 맞습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 조영호관장의 좌우지간~

“

노력이 고통스럽다고 느낄 때에도 자신을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다.

”

- 로저 배니스터, 영국, 1마일 4분 벽 돌파자, 신경과 의사 -

“

절 의심하는 모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제가 열심히 하도록 독려하셨으니까요.

”

- 우사인 볼트, 자메이카 육상선수, 100m, 200m 세계 기록 보유자 -



## 배움과 삶에 얽힌 이야기: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들이 인물이 된다?

제42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빌 클린턴은 ‘클린턴’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그의 생부는 빌이 태어나기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생모가 그가 8살 때 로저 클린턴이라는 사람과 재혼을 하여 ‘클린턴’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로저 클린턴은 알콜 중독자였으며 가정폭력을 일삼는 사람이었다. 빌 클린턴은 새 아버지에서 배울 것이 없었다.

빌 클린턴 보다 16년 후 제44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버락 오바마도 어린 시절이 빌 클린턴과 비슷하였다. 오바마는 영국계 미국인 어머니와 케냐 출신의 유학생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오바마가 2살 때 부모는 별거를 시작했고, 결국 이혼했으며, 케냐로 돌아간 아버지는 평생 성인이 된 오바마 보지 못했다. 오바마의 어머니는 인도네시아인과 재혼을 하였다.

빌 클린턴이나 버락 오바마 같이 저명한 사람들 중에는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보낸 사람들이 많다. 특히 아버지가 없이 편모슬하에서 자라거나, 아버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은 경우가 많다. 한 연구에 의하면 영국의 정치지도자 중 60%가 어렸을 때 부모 중 한 명을 잃었는데, 부모 중에도 아버지를 잃은 경우가 많았다.

이런 사실을 보고 치절은 말했다. “유명한 인물들은 대체로 불행한 어린 시절의 산물이다. 어린 시절 가혹한 환경, 역경의 고통, 멸시와 조롱의 아픔이 있었기에 그들의 끈질긴 지혜와 정해진 목표는 무자비할 정도의 불변성을 띄게 된다.”

## 조영호관장의 좌우지간~

“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당신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부터 배울 경우,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역경을 처리하는 방법이지 역경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 그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절대로. ”

- 빌 클린턴, 제42대 미국 대통령 -

“ 누군가 나타나기를 또는 좋은 시기가 오기를 기다리기만 한다면 변화는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들이다.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가 찾는 변화다. ”

- 버락 오바마, 제44대 미국 대통령 -



## 배움과 삶에 얽힌 이야기: 우측통행인가? 좌측통행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차는 우측통행, 사람은 좌측통행을 지켜왔었다. 어린 아이들은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고, 귀가 따갑도록 이 이야기를 들어왔었다. 그런데 외국 어느 나라든 차와 사람이 다른 방향으로 걷게 되어 있는 나라가 없다. 어떻게 된 일일까?

우측통행과 좌측통행은 우리나라 근대사만큼이나 곡절이 있다. 고종황제가 1903년 자동차와 황제전용 어차를 들여오고, 2년 뒤 ‘보행자와 차마의 우측’ 규정을 발표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사람과 차량 모두 우측통행으로 시작했던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1921년부터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좌측통행으로 바뀌었다. 일본은 사무라이가 보통 왼쪽 허리에 칼집을 차고 다니다 보니 서로 부딪히지 않게 좌측통행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말이다.

그러나 1945년 해방이 되고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다시 우측통행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데 이 때 차량에 대해서만 우측통행으로 변경했고,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두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좌우통행이 혼존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게 바른 일인가,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끊임 없는 논쟁이 있었다. 그동안 연구를 통해 사람과 차량이 모두 우측통행을 할 때 보다 안전하다는 결과를 얻었고, 2010년부터 우측통행을 사람에게도 적용하게 되었다.

우측통행이 보다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사람이 좌측으로 건너면 우측으로 오는 차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크데, 우측통행을 하면 그럴 위험이 거의 없다. 사람끼리 보행도를 걸을 때도 보통 오른손에 가방이나 짐을 들고 가는데 우측통행을 하면 서로 부딪힐 가능성이 적어진다.

그러나, 우측통행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늘 우측으로 걷는다는 사람이 50%대 정도이다. 혼란이 아닐 수 없다.

## 조영호관장의 좌우시간~

### 교통안전 표어

- 차는 사람 조심, 사람은 차 조심
- 질서는 나라사랑, 안전은 나의사랑
- 지킬 때 안전 있고, 서둘 때 사고 있다
- 조마조마 횡단보도, 도리도리 살펴가자



## vol. 39 우리 청소년의 고민은?

### 배움과 삶에 얽힌 이야기: 우리 청소년의 고민은?

2002년부터 통계청과 여성가족부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13세-24세)들의 모습을 다양한 통계숫자로 정리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 자료를 보면,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는 만족하고 있는지, 가족과의 관계는 어떤지, 인터넷은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고민은 뭐고, 고민상당은 누구하고 있는지, 키는 얼마나 자라고 있는지 등등 다양한 면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고민거리는 뭘까? 우리 청소년의 3대 고민거리는 공부, 외모, 직업이다. 2002년에는 공부를 선택한 비율이 약 40%, 외모는 20%, 직업은 7% 정도되었다. 그러니까, 공부와 외모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런데 2010년쯤 오면서 공부에 대한 고민은 비슷한데 직업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외모에 대한 비중은 낮아졌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르러서는 직업에 대한 고민이 공부에 대한 고민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다. 2020년도 청소년의 고민은 공부 29.7%, 외모 10.2%, 직업 28.1%이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직업에 대한 고민이 크다.

과거에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만 잘 하면, 나머지는 해결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공부를 잘 한다 해도 직업의 문제는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취업률이 점점 낮아져서 졸업 후를 걱정할 하는 것일까?

### 조영호관장의 좌우지간~

“

아프니까 청춘

”

- 김난도, 서울대 교수 -

“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걸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

- 존 F. 케네디, 제35대 미국 대통령 -



## 배움과 삶에 얽힌 이야기: 〈연쇄 창업가〉 창업도 하는 사람이 하는 이유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Tesla)의 CEO 일론 머스크(Elon Musk), 그는 이 테슬라를 처음 창업한 것이 아니다. 테슬라 이전에도 그는 3개의 사업을 만들어 본 창업 베테랑이다. 그의 나이 24세에 동생 킴벨 머스크와 함께 Zip2라는 회사를 세웠다. 도시가이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신문에 납품을 하거나 라이선스를 주는 회사였다. 4년 후 그 회사를 컴팩이라는 컴퓨터 회사에 팔아 돈을 좀 챙겼다.

그리고는 1999년 X.com이라는 회사를 창업하여 온라인 결제 사업을 하는 콘피니티를 인수하여 온라인 결제 사업에 눈을 뜨게 되었다. 사명을 페이팔(Paypal)로 바꾸고 온라인 결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했다. 이 회사는 대박을 터뜨렸다. 온라인 거래 회사 이베이(eBay)에 넘겼는데 머스크는 1억6천5백만 달러라는 거금을 거머쥐었다. 그리고 2002년 민간우주 항공사 스페이스X를 창업했고, 그 다음 해 테슬라를 만들었다. 사실 테슬라를 창업한 것은 머스크가 아니었지만, 처음 설립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떠나고 결국 머스크가 꾸려가게 되었다.

창업도 한 번 해본 사람이 또 하는 경향이 있다. 일론 머스크 같이 창업을 연속으로 하는 사람을 연쇄 창업가(Serial Entrepreneur)라고 한다. 오늘날 신규 창업의 3분의 1은 연쇄 창업가의 작품이라고 한다. 일론 머스크 같이 성공을 거듭하면서 창업을 이어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몇 번 실패하고 재도전하여 성공한 사람이 더 많다. 연쇄 창업가의 좋은 점은 무엇일까? 한번이라도 기업을 일으키고 키워본 사람은 성공했던 실패했던 확실한 것이 많다. 그들은 그 다음 창업할 때는 그가 배운 것을 활용하여 더 멋진 창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연쇄 창업가가 많다는 이야기는 사회가 보다 안정적인 면서도 혁신적인 사회가 된다는 이야기다.

그럼 어떤 사람이 창업을 하는가? 기술이 많은 사람도, 학력이 높은 사람도, 재산이 많은 사람도 아니다. 도전을 좋아하는 사람들도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이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요건이 있다. 실패한 기업을 매장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재기를 북돋우는 사회 분위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조영호관장의 좌우지간~

“ 모험 없이는 이익도 없다.  
(Nothing ventured, Nothing gained) ”

-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 -

“ 네 시작은 비록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

- 욥기 8장 7절 -



## 배움과 삶에 얽힌 이야기: 택시회사에서 친절을 배운 병원

안동에 있는 안동병원은 병상수가 1,773개나 되고, 의사가 140명 그리고 직원이 1,700명에 이르는 굴지의 병원이다. 권역응급센터와 권역의상센터로서 역할도 하고 있다. 그런 안동병원이지만, 1982년 설립된 이후 파산의 위기를 여러 번 넘겼다. 설립자 강보영 이사장은 의료인이 아니었지만 병원을 설립하여 무진 고생을 했다. 계속되는 적자 속에 노사분규도 심하게 겪었다. 그는 자살도 시도했었다. 그러다 우연히 책방에서 'MK택시의 기적'이라는 책을 발견하게 되었다. 제일교포인 유봉식, 유태식 형제가 운영하는 일본 교토의 택시회사 이야기였다. 그는 그 책에서 큰 영감을 얻었다. 친절!

병원도 서비스업인데 친절이 핵심이 아니겠나 싶었다. "MK에 가서 친절을 배우자." 그는 마음먹었다. 직원들을 모두 데리고 일본에 가서 원조 친절을 그대로 배워 볼 양이었다. 그러자 직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우리가 그래도 의사, 간호사한테 어떻게 택시회사에서 배운단 말인가!" 요는 이거였다. 강보



이번 호 주제: **안동병원 친절교육**

**01** 배움과 삶에 얽힌 이야기 : 택시회사에서 친절을 배운 병원



**안동 병원**

병상 1,773  
의사 140  
직원 1,700



조명호 관장

- 출처: [youtu.be/wDNYP8wOe\\_Y](https://youtu.be/wDNYP8wOe_Y)

영 이사장은 직원들을 끝까지 설득하여 매년 2차례 직원들 20여명씩 일본에 가서 친절교육을 받고 견학을 하게 했다. 돌아와서는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도록 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가 탄생했다. 누구에게나 언제나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것이다. MK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했다. 처음엔 환자들이 항의를 했다. “내가 아픈 게 그렇게 고맙냐?” 그러나 직원들은 이렇게 설명했다. “아파주셔서 고마운 게 아니고, 다른 병원에 안 가시고 우리병원에 와주셔서 고맙다는 뜻입니다.”

1992년부터 매년 이렇게 친절교육을 받고 친절운동을 실천하다 보니 안동병원은 ‘친절한 병원’의 대명사가 되었다.

## 조영호관장의 좌우시간~

“

그 곳이 어느 곳이든 배울 곳이 있으면 달려가야 하고, 그리고 일단 배우려고 생각했다면 몸에 벨 때까지 철저히 배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것이 내 「배움철학」의 요체다.

”

- 강보영, 안동의료재단 이사장 -

“

친절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며 모든 비난을 해결한다.  
그리고 얽힌 것을 풀어 헤치고, 어려운 일을 수월하게 만들고,  
압박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꾼다.

”

- 레프 톨스토이, 러시아 소설가 -



## 배움과 삶에 얽힌 이야기: 나이가 들수록 외국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에서 치매인구는 급격히 늘고 있다. 2010년도에는 48만명 정도 되던 치매인구가 2020년에 와서는 84만명에 이르게 되었고, 2030년에는 137만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치매는 대개 65세 이상 걸리고 그 유병률은 10% 정도 되는데 치매인구가 늘는 것은 유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이 아니라, 65세 이상 고령자의 수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치매는 당사자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되고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된다. 그만큼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골칫거리이다. 더욱 문제를 어렵게 하는 것은 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오로지 예방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다.

치매는 뇌에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뇌를 많이 쓰는 것이 치매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무학인 사람들은 8년 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에 비해 치매 위험성이 5배 정도 높다. 또한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효과적이다. 캐나다는 영어만 쓰는 지역과 영어와 불어를 동시에 쓰는 지역이 있는데, 영어와 불어를 동시에 쓰는 퀘벡 지역에서 치매 발생 연령이 영어만 쓰는 다른 지역에 비해 4.8년 정도 늦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도에서도 같은 연구를 했는데 힌두어만 쓰는 사람보다 힌두어와 영어를 동시에 쓰는 사람에게서 4.5년 정도 늦게 치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다.

외국어 학습은 뇌신경을 자극함으로써 치매 발생을 늦춘다. 나이가 들수록 외국어를 학습해야 하는 이유이다.

## 조영호관장의 좌우지간~

“ 내가 싫어하는 것은 자극이 없는 것이다. 신경망에 변화를 가져다주지 않기 때문이다. 몸을 단련하는 운동에서부터 무언가를 배우고 학습하는 과정, 사람과의 유기적인 관계형성에까지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신경망에 변화를 만들어낸다. ”

- 정래혁, 한국뇌과학연구원 수석연구원 -

“ 나의 세계는 내가 사용하는 언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

-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오스트리아/영국 철학자 -



## 배움과 삶에 얽힌 이야기: 뻔뻔해야 외국어를 잘 할 수 있다?

KBS 아나운서 출신이면서 여행작가로 활약하고 있는 손미나 씨는 4개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영어는 중학교 때, 스페인어는 대학에서, 프랑스어는 서른 중반을 넘어서 그리고 이탈리아어는 40대에 들어서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은 중국어, 그리스어와 씨름하고 있다. 그는 왜 이렇게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을까?

어렸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자기를 살려준 미국인에게 감사표시를 못해 답답하여 시작한 외국어지만, 외국어 공부를 해 보니 외국어는 단지 소통의 수단이 아니었다. 자신에게 전혀 새로운 세계로 인도해주는 길이었다. 하나의 외국어를 할 때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았다. 그럼 외국어를 어떻게 쉽게 공부할 수 있을까? 외국어는 꾸준히 매일 해야 한다. 매일 듣고, 매일 읽고, 매일 쓰고, 매일 단어 외우고, 매일 대화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습관들 밑바탕에 특별한 마인드가 필요하다. 두려움 없이 해내는 용기, 틀려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뻔뻔함’이 필요한 것이다. 손미나 씨가 스페인어를 배울 때, 대화할 상대가 없어 안타까워했는데 서울 종로를 걷다가 스페인어를 하는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일부러 그 사람을 부딪치면서 말을 걸고 친구로 사귀었다. 뻔뻔하게 말이다. 개그맨 김영철씨도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의 외국어 학습 비법은 ‘더 뻔뻔해져라’는 것이다. ‘더 뻔뻔한 영철영어’라는 책까지 펴냈다.

## 조영호관장의 좌우지간~

“

지친 몸을 달래기 위해 몰디브로 여행을 떠났고 그 곳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데 일 이야기만 하고 있는 자신에게 ‘행복하냐?’란 질문을 받고 거짓말로도 행복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것에 깨달음을 얻은 것이 변신의 시작이었다.

”

- 손미나, 여행작가 -

### ‘뻔뻔하다’의 영어 표현

- You are really brazen
- He is really shameless.
- She is a bit bold.



# 가족이 중요하다면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않는 사람들

## 배움과 삶에 얽힌 이야기:

### 가족이 중요하다면서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않는 사람들

동양인들이 유럽에서 일하면서 겪는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빌 리드(Bill Reed) 씨는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가끔 조언을 구한다. 빌 리드 씨가 한번은 이런 것을 물어왔다. “한국인들에게 물어보면,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작 가족 하고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해요. 왜 그러죠?” 정말 왜 그럴까?

2015년 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미취학 어린이들이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48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국가 평균 150분에 비해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2018년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볼 때 부모와의 대화시간은 불과 13분에 그쳤다. 2021년 조사에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초등학교 부모 교육정보 커뮤니티 ‘맘앤톡’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66%가 자녀와의 대화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고 대답했다.

자녀와 시간을 보내면서 대화하는 시간이 짧은 이유가 뭘까? 부모들의 긴 근로시간이 큰 몫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그 보다는 우리들의 단순한 생활습관 때문일 수도 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정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디지털 기기의 등장으로 더 벌어지고 있는 부모-자식 간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학습이 필요하다.

## 조영호관장의 좌우지간~

“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빠가 벌어드주는 돈이 전부가 아니다. 돈으로 아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아빠의 착각일 뿐이다. 아이들은 아빠가 벌어드오는 돈만큼이나 아빠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아빠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녀에게 내어주는 아빠의 시간이다. ”

- 베이비 뉴스 -

“ 아빠들은 아이들과 놀아준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금방 지친다. 아빠는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논다고 생각해야 한다. ”

- 김동기 교수, '아빠 10분 대화' 저자 -



## 배움과 삶에 얽힌 이야기: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은 부모의 대화법이 다르다

2010년 EBS에서 방송한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학교란 무엇인가’ 10부작 중 8부(11월 29일 방송)에서는 성적 상위 0.1%에 속하는 고등학생들의 특징을 소개하였다. 약 60만 명의 고등학생 중 800명의 최상위 학생을 일반 학생 700명과 비교하여 그들의 특징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기억력과 IQ에서 차이는 있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런데 다른 면에서 차이는 분명 컸다.

상호관련성이 없는 단어 20개를 보여주고 이 단어들을 기억하라고 한 실험을 했다. 자신이 기억한 단어를 쓰기 전에 자신이 몇 개 기억했나 숫자를 미리 써보게 했다. 상위 0.1%의 학생들은 자기가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숫자와 실제 기억해 낸 단어 숫자가 거의 일치했다. 하지만, 보통 아이들은 두 숫자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우수한 학생들은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인지하는 능력이 일반학생보다 높았다. 이 능력을 메타인지(meta-cognition)라고 한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인지능력이 아니라 메타인지능력이 높은 것이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상위 0.1% 아이들의 부모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더니, 그 부모들은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 아이들이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또 긍정적인 어휘를 많이 사용했다. 부모들이 아이들과 긍정적으로 대화를 하면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것이 아이들의 메타인지를 높여 성적뿐만 아니라 창의성도 높여준다.

## 조영호관장의 좌우지간~

“

아이들의 메타인지를 길러주고 싶다면,  
부모가 스스로 자신의 메타인지를 높여라.

”

- 리사 손, 미국 바나드 칼리지 교수 -

“

부모가 아이들과 대화할 때, 비난, 질책 같은 부정적인 대화보다 인정,  
격려 같은 긍정적인 대화를 5배 이상해야 한다.

”

- EBS 다큐멘터리 ‘학교란 무엇인가: 0.1%의 비밀’ -

## 요리의 달인 강레오 씨가 어떻게 농사의 달인이 되었나?

### 배움과 삶에 얽힌 이야기:

### 요리의 달인 강레오 씨가 어떻게 농사의 달인이 되었나?

마스터 셰프 강레오 씨는 어렸을 때부터 요리하는 것을 좋아 했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학교 3학년 때 요리사가 되기로 작정을 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조리사 자격증을 따고 레스토랑 주방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22살에 그는 영국으로 건너가 서양의 고수에게서 사사를 받고 저명 식당에서 헤드 셰프까지 했다.

강레오 셰프는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마스터셰프 코리아’ 등 방송에 출연해 인기를 모았다. 그러던 그가 잠시 얼굴을 감추더니 느닷없이 ‘농부’로 나타났다. 전남 곡성에서 멜론을 재배하는데 자신의 이름을 딴 ‘레오 멜론’이라는 품종도 개발했다. 이 멜론은 백화점에서 개당 10만원에 팔린다. 일반 멜론이 7-8000원에 팔리는 것과 비교하면 10배가 넘는 값이다. 멜론만이 아니다. 전국에서 다양한 작물



이번 호 주제: 셰프에서 농부로

**01** 배움과 삶에 얽힌 이야기: 요리의 달인 강레오 씨가 어떻게 농사의 달인이 되었나?



❖ 자신의 이름을 딴 고급 멜론 '레오 멜론' 을 개발한 강레오 셰프(사진 조선일보)



- 출처: [youtu.be/3w568rZInYY](https://youtu.be/3w568rZInYY)



을 제배한다. 강화에서 유기농 쌀과 고구마, 금산에서 산야초, 고창에서 땅콩 등 말이다. 서울에서 셰프로서 일을 하면서 농사도 짓는 겸업을 하고 있다.

그는 요리를 하면서 요리의 원천은 농사라고 생각하고 농사를 직접 해보고 싶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벤처농업대학과 한국수산벤처대학에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다. 그때 강의를 하였던 민승기 전 농촌진흥청장장의 조언에 따라 전국 161개 시군을 돌아보고 각 지역에 맞는 특산물을 발굴해서 가꾸어보자고 마음먹고 그는 ‘셰프’보다 ‘농부’로 불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다.

## 조영호관장의 좌우지간~

“

내 요리는 도마가 아니라 땅에서 시작된다.

”

- 강래오, 요리사 -

“

풍토가 다르면 농법도 다르다.  
이미 간행된 중국의 농서는 우리나라의 농법에 직접 이용되기  
곤란한 문제가 있으므로 세종이 각도의 감사(監司)에게  
각지의 농군들에게 지역에 따라 경험한 바를 자세히 듣고 수집할 것을 명하여  
본서를 편찬하게 되었다.

”

- 정초의 서문, 농사직설 -

《농사직설》(農事直說): 세종이 정초(鄭招), 변효문(卞孝文) 등에게 명하여 1429년(세종 11년)에 편찬해 낸 책. 세종의 농업에 대한 열정으로 고려 말에 비해 농지는 2.4배, 1결당 수확량은 4배가 늘어남.



## 배움과 삶에 얽힌 이야기:

### 유치원에서 교사가 남자아이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이유

유치원에도 남녀차별이 존재할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발표한 자료(2020.11.20.)에 의하면, 교육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교사의 말과 행동에서 성차별이 심하다. 가령, 교사가 “여자는 안전해야 해!” “남자는 씩씩해야 해!” 라고 말을 한다든지, “여아는 발레, 남아는 태권도” 하는 식으로 교육프로그램이 고정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성역할을 엄격히 구분했던 과거의 인식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다.

한편,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 연구에 의하면, 교사가 여자아이들보다 남자아이들과 상호작용을 많이 한다는 것이다. 신라대학교 손원경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남자 아이와의 상호작용이 여자아이의 상호작용 보다 1.8배나 많았다. 말하자면, 여자 아이 이름을 한번 부를 때, 남자 아이 이름은 두 번 정도 부른다는 이야기다. 왜 남자 아이의 이름을 많이 부를까? 칭찬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야단치고, 통제하기 위해서란다.

남자 아이들은 신체를 많이 쓰고, 경쟁적인 놀이를 좋아하다보니 자꾸 문제를 발생하게 되고, 교사들로부터 통제를 받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유치원의 교사도 대부분이 여자이고, 유치원 교실은 점점 여아 친화적이 되면서 남자아이들이 ‘문제아’시 되는 경향이 있다. 생물학적으로 차이가 있는 여아와 남아가 모두 행복해지는 유치원을 만들 수는 없을까?

## 조영호관장의 좌우지간~

“

유아기부터 남자아이들이 여성스러운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한다면 남자아이들은 크면서 필요한 기술을 못 배우게 될 수도 있다.

”

- 멜리사 호겐툼, BBC Reel 에디터 -

“

어린이 교육은 과거의 가치 전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가치 창조에 있다.

”

- 존 듀이, 미국 교육철학자 -



## 배움과 삶에 얽힌 이야기:

### 최민준 씨는 왜 남자아이만 받는 미술학원을 운영하는가?

남자아이들만 다닐 수 있는 미술학원이 있다. 최민준 씨(37세)가 운영하는 ‘자라다 남아미술연구소’가 그곳이다.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미술과외를 했던 최 씨는 미술에 있어서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 사이에 차이가 많다는 것을 절감했다. 예쁘게 그림을 그리는 것은 여자 아이들이 잘 한다. 대신에 남자 아이들은 거칠게 그리고, 물건을 만드는 것을 잘 한다. 그런 걸 잘 하는 남자 아이들은 통념으로 보았을 때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아이이고, 더러는 주의력결핍증이 있는 아이로 오인 받기도 한다.

최민준 씨는 남자 아이들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해 주고 그들의 특성을 잘 살려주는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싶었다. 자신의 학원에는 스케치북, 색연필, 이런 것과 함께 못, 망치, 드라이버 같은 것도 비치하고 싶었다. 남자 아이들은 그런 것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미술은 단지 예쁜 얼굴이나, 색색깔의 꽃만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남자 아이들은 소근육의 발달이 늦기 때문에 여자 아이들보다 섬세하지 못하다. 그리고 남자 아이들의 공감 능력이 여자 아이들보다 떨어진다. 그런 남자아이들을 감성적으로만 다룰 수 없다. 최민준 씨는 아이들은 다 자신의 밑그림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밑그림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철학이다.

## 조영호관장의 좌우지간~

66

육아서를 너무 많이 보지 마라! 육아서에는 우리 아이가 한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것을 실천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 정답이 아니기 때문이다. 엄마들은 아이가 보내는 신호를 좇아야 하고,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

- 최민준, 자라다 남아미술연구소 대표 -

66

최근의 연구를 보면, 여자 아이는 공감화 능력, 남자 아이는 체계화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 박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

# 대한항공에서 비행기 사고 후 영어를 공용화 한 이유

## 배움과 삶에 얽힌 이야기:

### 대한항공에서 비행기 사고 후 영어를 공용화 한 이유

저널리스트 말콤 글래드웰이 쓴 책 '아웃라이어'(번역, 2009, 김영사)는 예술, 스포츠, 과학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아웃라이어는 외지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돌출된 사람이라는 뜻도 있다. 아웃라이어는 처음부터 재능을 타고난 사람일까?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글래드웰은 타고난 재능보다는 노력과 주변 분위기라는 결론을 내고 있다.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도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아웃라이어에 KAL기(KE801) 괄 사고 이야기가 길게 나온다. 이 사고는 1997년 8월 6일 새벽, 괄 공항에서 일어난 것으로 탑승자 254명 중 222명이 사망한 불행한 참사였다. 그날따라 일기가 불순했고, 더욱이 비행기의 하강을 유도하는 항공유도등에 고장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호 주제



항공사고와  
소통(영어)

01
배움과 삶에 얽힌 이야기: 대한항공에서 비행기 사고 후 영어를 공용화 한 이유





- 출처: [youtu.be/WC-4fG2hJY](https://youtu.be/WC-4fG2hJY)



그런 것들은 치명적인 사고 원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날 조종석에 앉은 기장, 부기장, 기관사는 모두 베테랑이었고, 그런 문제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문제는 그들 간의 소통과 팀워크였다. 사고 순간 기장이 조종석에 앉아 조정대를 잡고 있었다. 그러니까 최고 상사가 조정을 한 것이다. 한국의 수직적 문화가 여기에서도 작동하고 있었다.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기장에게 문제를 강하게 어필하지 않고 있었다. 비행기 사고도 개인의 실력보다는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콤 글래드웰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항공은 미국 델타항공에 의뢰하여 승무원들 간의 의사소통에 대해 새로 교육하고, 조종사실에서는 한국어가 아닌 영어를 쓰도록 했다. 한국적 수직문화가 아닌 서구적 수평 문화를 한정적으로나마 만들기 위해서였다. 문화를 만드는 노력이 개인 능력을 바꾸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 조영호관장의 좌우지간~

“

비행기 추락 사고를 유발하는 실수들은 예외 없이 팀워크나 의사소통의 문제다.

”

- 말콤 글래드웰, '아웃라이어' 저자 -

“

권력 거리란 조직이나 단체에서 권력이 작은 구성원이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를 수용하고 기대하는 정도이다. 권력 거리가 작은 문화에서는 권력 관계가 보다 상호의존적이고 민주적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

- 헤이르트 호프스테더, '세계문화와 조직' 저자 -

## 배움과 삶에 얽힌 이야기: 구자는 LS엠트론 회장은 왜 집에서 벌을 키우나?

LS엠트론의 구자는 회장은 서울 성북동 자택 뒤뜰에서 꿀벌을 기른다. 2020년 시작할 때 4만 마리 정도였던 꿀벌은 1년 새 15만 마리 가까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산출되는 꿀도 연간 10리터 가량이나 된다. 구 회장은 지인들에게 꿀을 선물하며 ‘꿀벌 살리기’를 알리고 있다. LS그룹은 그룹차원에서 꿀벌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다. 사내연수원에서는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토종벌꿀 살리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꿀벌 살리기 운동은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각종 조사에 의하면 꿀벌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2000대 초까지 꿀벌의 숫자는 40% 정도 감소되었다. 우리나라의 토종 꿀벌 수요의 감소는 더욱 심각하여 2006년 40만이던 꿀벌수가 2012년 4만5천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 2013). 6년 사이 10분의 1이 된 것이다. 꿀벌 수요의 감소는 농사에



이번 호 주제







최영호 회장

- 출처: [youtu.be/WC-4fG2hJY](https://youtu.be/WC-4fG2hJY)



피해를 초래하고 생태계를 왜곡시킨다. 꿀벌에 의한 수분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꿀벌 살리기 운동은 도시인들이 더 적극적이다. 영국은 1980년대부터, 일본은 2006년,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도시양봉’을 시작했다. 그러나 꿀벌을 도시에서 기르는 것은 상당한 위험과 불편이 따른다. 좋은 취지를 살리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선 꿀벌의 생태에 대해 그리고 양봉에 대해 학습이 필요하다. 수원시 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는 2014년 9월부터 도시양봉 과정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다.

## 조영호관장의 좌우지간~

“

양봉장 한 곳이 생기면 주변 꽃 발화율이 20%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다.  
꽃이 피면 곤충이 모이고, 곤충을 잡아먹는 새들도 함께 모이게 된다.  
결국 도시 생태계가 살아나는 것이다.  
양봉장은 도시 재생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

- 박 진, 어반비즈서울 대표 -

“

The busy bee has no time for sorrow.  
(바쁘게 움직이는 벌에게는 슬퍼할 여유가 없다)

”

- 윌리엄 블레이크, 영국 시인 -

learning letter

# 배우러 와

평생학습관 개관 10주년 기념

발행일 | 2021년 12월 1일


발행처 | 수원시 글로벌평생학습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81번길 2(우만동)


---

 [www.youtube.com/channel/UCEnLv-bODHfRETFg7a14MUQ](https://www.youtube.com/channel/UCEnLv-bODHfRETFg7a14MUQ)

 [www.facebook.com/suwonedu](https://www.facebook.com/suwonedu)

 [blog.naver.com/swedudip](https://blog.naver.com/swedudip)

 [www.instagram.com/slowmakespace\\_suwon](https://www.instagram.com/slowmakespace_suwon)

 [learning.suwon.go.kr](https://learning.suwon.go.kr)





수원시 글로벌평생학습관

1623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81번길 2 (우만동)

Tel. 031-248-9700 | Fax. 031-248-9902